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7. 11

동향분석실

머 리 말

보험산업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다음 해에는 증가하는 회복력을 보였으나 이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0.7% 감소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전년과 유사한 0.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은 미약하지만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3.0%, 2018년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의 주요 요인은 저축성보험의 추세적 감소이다. 저금리, 새로운 회계제도와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보장성보험 역시 시장의 성숙도 심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회복세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국내 금리 상승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금리 상승은 보험산업에 기회요인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한 보험계약 해약 등 수요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금리 등으로 인한 추세적인 보험산업 성장세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경영환경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8년 수입·원수보험료 전망과 경제 환경, 규제, 기술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 10

1. 세계경제 / 10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 12
3. 2018년 경제 전망 / 19

II.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26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26
2. 보험산업 성장성 / 27
3. 금리 상승의 영향 / 28

III.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33

1. 보험산업 보험료 / 33
2. 생명보험 / 35
3. 손해보험 / 45
4. 요약 / 60

IV. 경영 및 정책과제 / 62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62
2. 금융정책 방향 / 64
3. 경영 및 정책과제 / 65

■ 표 차례

- 〈표 I -1〉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비교 / 12
- 〈표 I -2〉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 20
- 〈표 I -3〉 소비자물가 상승률 / 23
- 〈표 I -4〉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기준금리 전망 / 25
- 〈표 II -1〉 2017년 2/4분기 보험회사 운용자산대비 대출 비중 / 29
- 〈표 II -2〉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 32
- 〈표 III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7
- 〈표 III -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46
- 〈표 III -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48
- 〈표 III -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 52
- 〈표 III -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5
- 〈표 III -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8
- 〈표 III -7〉 거시경제 및 보험산업 전망 요약표 / 61
- 〈표 IV -1〉 주요국의 최소자본금 요건 비교 / 73
- 〈표 IV -2〉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 81
- 〈표 IV -3〉 공사연금 재구조화 및 협력 방안 / 82
- 〈표 IV -4〉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 / 86

■ 그림 차례

- 〈그림 I -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10
- 〈그림 I -2〉 주요국 경기회복세 / 11
- 〈그림 I -3〉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 12
- 〈그림 I -4〉 주요국 가계의 부채비율 / 13
- 〈그림 I -5〉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 13
- 〈그림 I -6〉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민간소비 / 13
- 〈그림 I -7〉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과 설비투자 / 13
- 〈그림 I -8〉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 14
- 〈그림 I -9〉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 14
- 〈그림 I -10〉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 15
- 〈그림 I -11〉 가계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 15
- 〈그림 I -12〉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과 내수 / 16
- 〈그림 I -13〉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후 소매판매 증가율 / 16
- 〈그림 I -14〉 우리나라 총수출액과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 / 17
- 〈그림 I -15〉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과 수출 비중 / 17
- 〈그림 I -16〉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 상승률 / 18
- 〈그림 I -17〉 유가 상승률과 수입 / 18
- 〈그림 I -18〉 북한 핵실험 시기와 금융시장 변동 / 19
- 〈그림 I -19〉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및 소비자심리지수 / 22
- 〈그림 I -20〉 국내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증가율 / 22
- 〈그림 I -21〉 일반기계 수입물량지수 및 국내 기계수주액 증가율 / 22
- 〈그림 I -22〉 세계 반도체 매출액 및 세계교역 신장률 / 22
- 〈그림 I -23〉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 24
- 〈그림 I -24〉 기준금리 추이 / 25
- 〈그림 I -25〉 국고채 금리 추이 / 25
- 〈그림 II -1〉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 / 27
- 〈그림 II -2〉 2015년 주요국 GDP 대비 금융·보험업 비중 / 27
- 〈그림 II -3〉 2017년 2/4분기 업권별 자산 규모 비교 / 27

■ 그림 차례

- 〈그림 Ⅱ-4〉 2017년 2/4분기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 비교 / 27
- 〈그림 Ⅱ-5〉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 28
- 〈그림 Ⅱ-6〉 우리나라 보험침투도 비교 / 28
- 〈그림 Ⅱ-7〉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 29
- 〈그림 Ⅱ-8〉 금리 상승 시 보험회사 채권평가손실 규모 추정치 / 29
- 〈그림 Ⅱ-9〉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하락폭 추정치 / 29
- 〈그림 Ⅱ-10〉 국고채 금리와 보험 해약률 / 30
- 〈그림 Ⅱ-11〉 가계부채 증가율과 해약금액 증가율 / 30
- 〈그림 Ⅱ-12〉 의료비 재원조달 비중 / 31
- 〈그림 Ⅱ-13〉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 32
- 〈그림 Ⅲ-1〉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 34
- 〈그림 Ⅲ-2〉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 34
- 〈그림 Ⅲ-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 35
- 〈그림 Ⅲ-4〉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 / 37
- 〈그림 Ⅲ-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 38
- 〈그림 Ⅲ-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40
- 〈그림 Ⅲ-7〉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 40
- 〈그림 Ⅲ-8〉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42
- 〈그림 Ⅲ-9〉 일반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 42
- 〈그림 Ⅲ-10〉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43
- 〈그림 Ⅲ-11〉 변액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 43
- 〈그림 Ⅲ-12〉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 43
- 〈그림 Ⅲ-1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 44
- 〈그림 Ⅲ-14〉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 44
- 〈그림 Ⅲ-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 45
- 〈그림 Ⅲ-16〉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과 증감 요인 / 47
- 〈그림 Ⅲ-1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0
- 〈그림 Ⅲ-18〉 장기손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50

■ 그림 차례

- 〈그림 Ⅲ-19〉 질병 및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0
- 〈그림 Ⅲ-20〉 질병 및 상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50
- 〈그림 Ⅲ-21〉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51
- 〈그림 Ⅲ-22〉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51
- 〈그림 Ⅲ-23〉 운전자·재물보험 등 원수보험료 전망 / 51
- 〈그림 Ⅲ-24〉 운전자·재물보험 등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51
- 〈그림 Ⅲ-25〉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53
- 〈그림 Ⅲ-26〉 개인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53
- 〈그림 Ⅲ-27〉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 54
- 〈그림 Ⅲ-28〉 퇴직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 54
- 〈그림 Ⅲ-29〉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 56
- 〈그림 Ⅲ-30〉 대당 경과보험료 / 57
- 〈그림 Ⅲ-31〉 대당 담보가입금액 / 57
- 〈그림 Ⅲ-3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 59
- 〈그림 Ⅲ-33〉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59
- 〈그림 Ⅳ-1〉 경제·사회적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 63
- 〈그림 Ⅳ-2〉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정책 방향 / 64
- 〈그림 Ⅳ-3〉 주요국 일반손해보험 침투도 비교 / 65
- 〈그림 Ⅳ-4〉 일반손해보험 시장 대비 상품별 비중 / 66
- 〈그림 Ⅳ-5〉 비용효율적 해외 진출 / 68
- 〈그림 Ⅳ-6〉 특별계정 상품과 관련 서비스 / 70
- 〈그림 Ⅳ-7〉 특별계정자산 비중과 수수료 수익 비중 / 71
- 〈그림 Ⅳ-8〉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위험관리 역량 제고 / 77
- 〈그림 Ⅳ-9〉 금융산업 운용이익률과 해외투자 규모 / 78
- 〈그림 Ⅳ-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 변화 / 79
- 〈그림 Ⅳ-11〉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 / 87
- 〈그림 Ⅳ-12〉 건강나이를 고려한 상품 개발 / 89
- 〈그림 Ⅳ-13〉 교보생명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 구축 방안 / 91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Issues 2018

The growth of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remained sluggish. Life insurance premium growth rate is projected - 0.7% in 2017 and expected to inch up to 0.3% in 2018 while non-life insurance premium is expected to grow 3.0% in 2017 and 2.5% in 2018.

The reduction of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is the prominent reason for low premium growth, and several factors affected the reduction: low interest rates, adoption of the IFRS 17 and resulting implementation of the K-ICS, sales fee restructuring, and change in tax benefits for savings type insurance products. The premiums from protection type insurance products are also declining for the past couple years due to market saturation.

Market interest rates have increased as the growth rate of the Korean GDP has gone up due to increasing exports in information and technology products. The increase in interest rates should positively affect insurance industry while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would be more onerous to bear.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household debt may result in the increase in the lapse ratios and the decrease in insurance products as disposable household income shrinks.

In response to the weakening growth potential of insurance industry amid regulatory and socio-demographic changes, insurance companies should find another source of growth based on their own core competence, focus on long-term corporate values rather than short-term profits and align their risk management with regulatory changes. As insurance demands shrink and lapse ratios in life insurance swell, health and retirement income risks in low income households would increase and this is why insurance companies should assume and play more important roles as social safe net.

Finally, insurance companies should respond preemptively to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as the revolution might bring unprecedented risks to the market.

요 약

I.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확대로 인해 2017년 3.5%, 2018년 3.6%로 전망함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지속,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내수 위축 등이 대내적 리스크로 작용함
-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압력,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금융 변동성 확대 등이 대외적 리스크로 작용함

3. 2018년 경제 전망

- 2018년 국내총생산은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재화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소비자물가는 가계소득 증가로 총수요 압력이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인한 공급 측 영향력 감소로 1.9% 상승할 전망이다
 - 2017년 소비자물가는 기초적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상승압력으로 2.0% 상승할 전망이다
- 국내 금리는 물가 상승 및 경제성장률 확대, 미국 금리 상승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고채 금리(3년물)는 2017년 1.8%, 2018년 1.9% 상승할 전망이다
 - 기준금리는 2018년 중 한차례 인상 전망(해외투자은행)이 유력함

II.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기준 5.42%로 일본(4.48%), 독일(4.07%)에 비해 높음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 규모는 1,077조 원이며, 가계금융 자산의 31.7%를 보험/연금에 차지, 국민의 주요 저축 및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착함

2. 보험산업 성장성

-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 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침투도 기준으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침투도는 2015년 기준 각각 7.5%, 5.1%로 OECD 평균(생보 4.8%, 손보 4.5%)보다 높아 성장여력이 제한적임

3. 금리 상승의 영향

- 금리 상승은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보유채권 가치 하락으로 가용자본 감소,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해약률 상승 시 가계의 건강 및 소득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음
 - 2010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 자료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해약률 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

Ⅲ.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0.81%, 2018년 1.24%로 전망됨
 - 초회보험료는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을 제외하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생명보험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와 보장성보험, 퇴직연금의 증가세 둔화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신(新) 종신보험의 신규 수요 둔화,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전년도 판매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이 부진하고, 변액저축성

보험도 감소하여 5.8%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와 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5.5% 증가가 전망됨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변액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개선되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종신보험 신규 수요가 둔화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또한 제한적 성장에 그치면서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2017년에 비해 개선된 3.0%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 일반저축성보험은 공급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2017년 7.9%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7.0% 감소할 전망이다
 -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1.8%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0.6%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3. 손해보험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대비 2.3%p 감소한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 공시기준 이율 하락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재물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성장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성장 정체와 가계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로 인한 개인연금의 성장 저하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가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요율 인하의 여파로 전년대비 4.0%p 하락한 5.4%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에 의한 특종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4.8% 증가할 전망이다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감소와 장기저축성보험 감소 지속으로 인해 2017년 대비 0.5%p 감소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보험니즈 변화, 보험료 현실화 등으로 보장성보험이 성장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및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이 계속되면서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하락한 2.1% 증가가 전망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겠으나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은퇴, 개인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은퇴시장의 확대에 퇴직연금시장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8% 증가가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차량대수 증가세 지속, 고가차 증가, 가입금액 고액화 등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보험 가입 확대, 2017년 대형사 중심의 요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한 3.2%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요약 표 1〉 2018년 보험산업 종목별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보장성 ¹⁾	377,794	9.2	402,894	6.6	420,421	4.4	432,238	2.8
	저축성 ²⁾	649,618	2.6	620,348	-4.5	584,643	-5.8	567,244	-3.0
	퇴직연금	136,990	15.9	167,252	22.1	176,491	5.5	185,803	5.3
	기타 ³⁾	7,735	-5.1	7,619	-1.5	7,641	0.3	7,582	-0.8
	합 계	1,172,137	6.0	1,198,112	2.2	1,189,197	-0.7	1,192,867	0.3
손해보험	장기손보	465,801	4.9	477,727	2.6	492,008	3.0	502,238	2.1
	상해·질병	243,162	14.0	271,537	11.7	298,147	9.8	314,990	5.6
	저축성	104,650	-11.0	82,488	-21.2	62,736	-23.9	47,679	-24.0
	기타 ⁴⁾	117,988	4.2	123,703	4.8	131,125	6.0	139,569	6.4
	연금부문	103,879	-0.9	118,160	13.7	116,490	-1.4	118,623	1.8
	개인연금	40,211	-2.1	38,768	-3.6	37,098	-4.3	35,262	-5.0
	퇴직연금	63,668	-0.1	79,392	24.7	79,392	0.0	83,362	5.0
	자동차	149,914	10.7	164,053	9.4	172,911	5.4	178,445	3.2
	일반손보	82,879	1.8	85,032	2.6	89,083	4.8	93,054	4.5
	화재	3,041	-2.1	3,011	-1.0	2,965	-1.5	2,905	-2.0
	해상	7,091	-3.4	6,080	-14.3	6,201	2.0	6,326	2.0
	보증	15,816	4.4	15,909	0.6	17,182	8.0	18,117	5.4
	특종 ⁵⁾	56,931	2.0	60,032	5.4	62,734	4.5	65,707	4.7
	합 계	802,473	4.8	844,972	5.3	870,492	3.0	892,360	2.5
전 체	1,974,609	5.5	2,043,084	3.5	2,059,689	0.81	2,085,227	1.24	

주: 1)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질병보험, 변액종신 등이 포함됨

2)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3)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4) 기타에는 재물, 운전자,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5)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이 포함됨

6)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4. 요약

■ 명목경제성장률이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시장의 높은 성숙도로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산업 성장세를 제한하고 있음

- 또한 금리 상승이 보험회사 건전성 저하,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및 취약계층 증가, 그리고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보장 공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임

IV.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보험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성장, 금리 상승,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보험산업의 대응이 필요함
 - 첫째, 저성장 지속으로 보험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저하, 지급여력비율 하락 및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부채부담 확대로 인한 취약계층 증가, 보험해약률 상승에 따른 위험보장 공백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간 융합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정책 방향

- 새 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포용적 금융)과 금융업 본연의 역량 집중(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보험산업의 네 가지 대응과제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대응과제별로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를 제시함

〈요약 표 2〉 2018년 보험산업 정책 및 경영과제

대응 과제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
본연의 경쟁력 강화	1.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2. 비용효율적 해외 진출
	3. 겸영업무 역량 강화
	4. 간단보험 활성화
	5. 전문보험회사 활성화
보험회사 위험관리 강화	6.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위험관리
	7. 해외투자 위험관리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8. 실손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9. 공사협력 노후소득 보장
	10.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11. 자동차보험과 사고 예방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 대비	12. 디지털경제와 사이버보험
	13. 보험과 헬스케어 융복합
	14.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지급 간소화

3. 세부 정책 및 경영과제

■ 첫째, 양적 성장의 동력이었던 일반저축성보험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 본연의 경쟁력에 근거한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 성장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일반손해보험의 시장 확대 및 역량 강화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통해 축적된 고객의 자산을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게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진출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현지화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지 관리 회사에 보험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위험보장 공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하고 위험보장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한 보험상품 공급 활성화의 필요가 있음

- 간단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진입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진입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IFRS 17, IFRS 9, K-ICS 등의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리변동과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자산부채관리 전략과 일치시켜야 함

■ 셋째,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확대,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한 해약률 상승에서 초래되는 위험보장 공백 확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공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됨
-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 넷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등 산업의 변화 과정에서는 실업 증가, 소득양극화 등의 폐해와 더불어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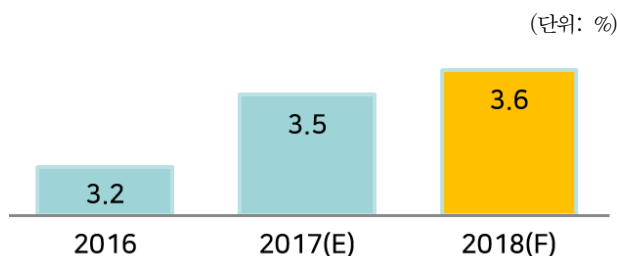
- IT, 의료, 보험이 융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함
-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I. 거시경제 환경 변화와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 미국과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확대로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7년 3.5%보다 높은 3.6%로 전망¹⁾함
 - 미국 경제는 부채조정과 내수회복으로, 유로지역은 수출과 내수회복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는 성장세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그림 I-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EO update(2017. 7)

- 미국, EU 등의 경기회복세는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 경제의 회복세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정책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음

1) IMF(2017. 7),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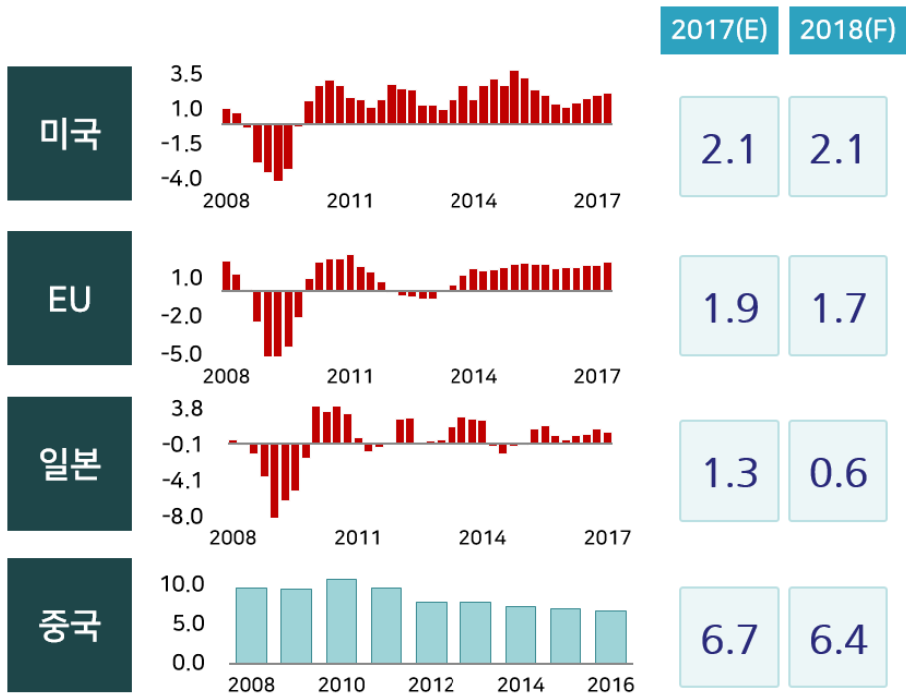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장기금리 상승세 가속화를 통해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의 위험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브렉시트 이후 협상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중국의 중속성장 체제로의 전환, 부채문제로 인한 불확실성 등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조정
-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그림 I-2〉 주요국 경기회복세

(단위: %)



2. 국내경제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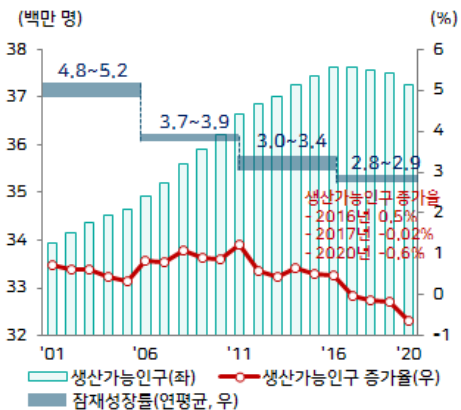
가.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91년에서 2007년까지 5.9%로 추정되었으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3.6%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8% 내외로 추정함
- 우리나라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경제위기를 경험함

〈표 I-1〉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비교 〈그림 I-3〉 생산가능인구와 잠재성장률

구분	생산가능 인구 비중 정점 시기	정점 당시 생산가능 인구 비중	비고
일본	1992	69.8	1990년 버블붕괴
독일	1987	70.1	-
이탈리아	1993	69.4	-
포르투갈	1998	67.5	PIGS
스페인	2005	69.0	PIGS
그리스	2000	68.0	PIGS
프랑스	1988	66.0	-
한국	2016	73.2	2018년 위기설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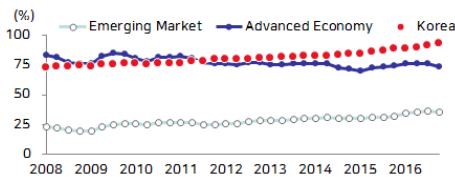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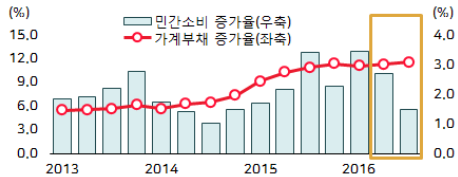
나. 부채와 내수

-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제조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 수준은 높은 수준을 지속함
 - 우리나라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3/4분기 78.2%로 선진국의 77.1%를 넘어서며 상승세가 확대, 2016년 4/4분기 92.8%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제조기업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100.4%로 2013년 1/4분기 105.4% 이후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가계부채 증가율과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5년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2016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됨
 - 2016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11% 내외로 2015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 1/4분기 2.3%에서 2016년 4/4분기 1.5%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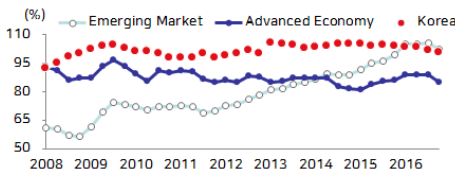
〈그림 I-4〉 주요국 가계의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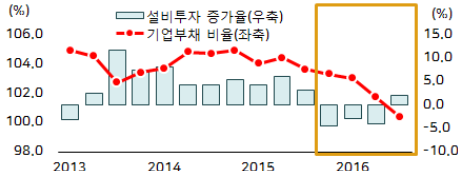
〈그림 I-6〉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과 민간소비



〈그림 I-5〉 주요국 제조기업의 부채비율



〈그림 I-7〉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과 설비투자



자료: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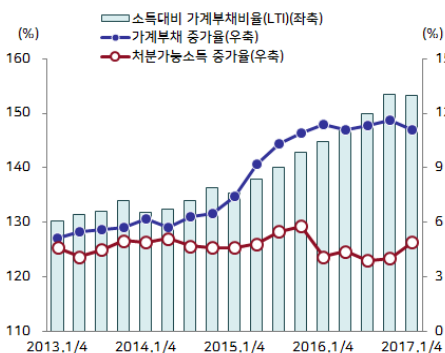
자료: BIS(2017); 한국은행

- 기업은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기업부채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3년부터 2015년 4/4분기까지 설비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를 유지하였으나 2016년부터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기업부채비율은 하락함

다. 가계부채와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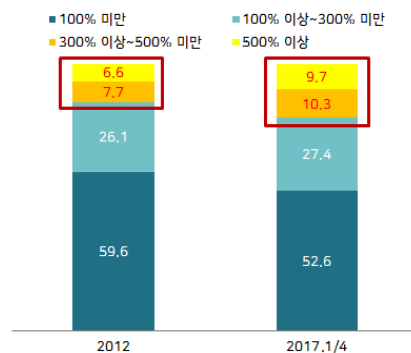
- 가계부채 증가로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3%까지 상승하고 있으나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정체되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4년 2/4분기 5.1%, 2015년 3/4분기 5.5%, 4/4분기 5.8%를 기록한 후 2017년 1/4분기 4.9%로 하락함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 30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이 2012년 14.3%에서 2017년 1/4분기 20%로 상승함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이 2013년 1/4분기 130.2%에서 2017년 1/4분기 153.3%로 상승하였고, 300%에서 500% 미만 가구의 비율은 2012년 7.7%에서 10.3%, 500% 이상 가구의 비율은 6.6%에서 9.7%로 상승함

〈그림 I-8〉 가계부채 관련 주요 지표



자료: 한국은행

〈그림 I-9〉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비율(LTI)¹⁾²⁾



주: 1) LTV 구간별 분포는 차주 수 기준

2)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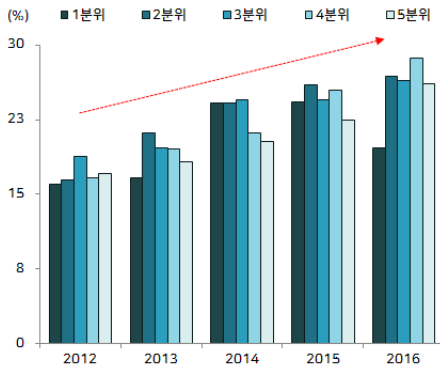
-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중산층 가계의 가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12년 이후 상승하고 있음

○ 2분위 가계는 2012년 16.4%에서 2016년 26.9%, 3분위 가계는 18.8%에서 26.4%, 4분위 가계는 16.7%에서 28.7%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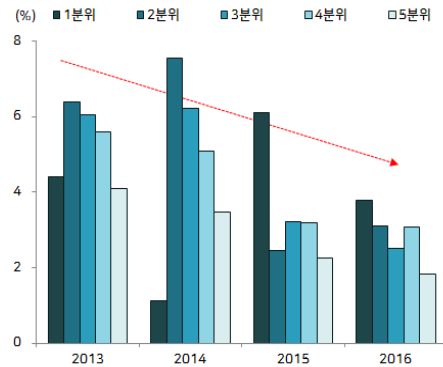
- 가치분소득 개선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가계의 소비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2013년과 2016년의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 증가율은 2분위 가계 6.4%와 3.1%, 3분위 가계는 6.1%와 2.5%, 4분위 가계는 5.6%와 3.1%로 나타남

〈그림 I-10〉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그림 I-11〉 가계 소득분위별 가치분소득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라. 부동산 정책과 경제성장

- 8.2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확대될 경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확대가 우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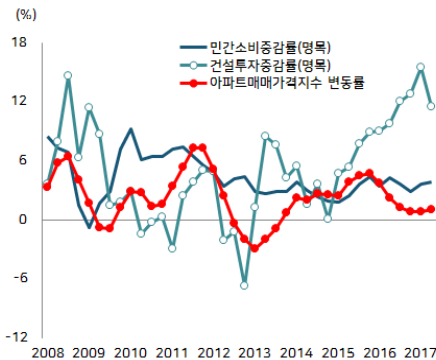
○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함

○ 주택가격 증감률은 건설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와 동행하는 특성이 있음(〈그림 I-12〉 참조)

■ 2017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내수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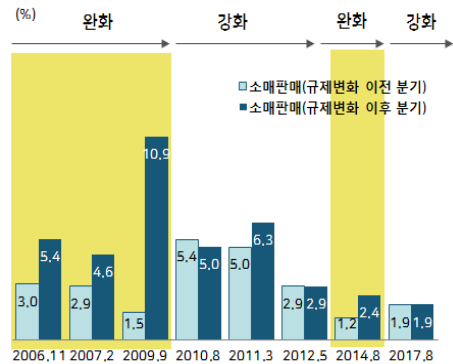
- 2006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및 완화 전후의 소매판매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006년부터 2009년에는 규제 완화 이후 소매판매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2014년 규제 완화 전후에는 소매판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 반면 규제가 강화된 후에는 소매판매 증가세가 강화 전과 유사하거나 축소된 경향이 있음(〈그림 I-13〉 참조)

〈그림 I-12〉 아파트매매가격 상승률과 내수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그림 I-13〉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후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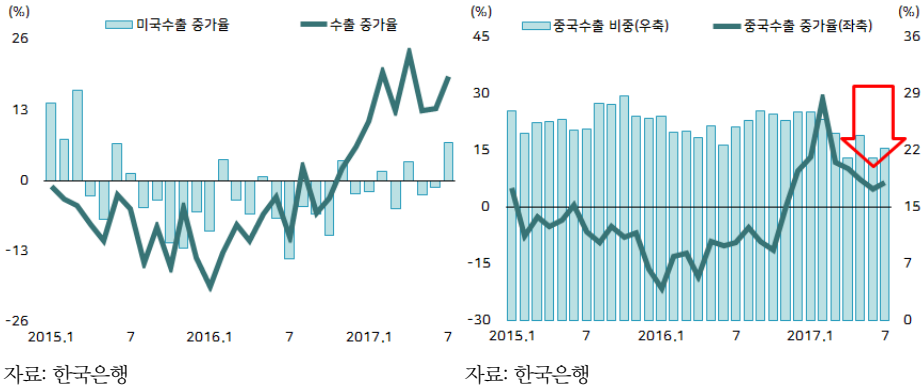
마. 중국 리스크

■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리스크로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함

-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6년 2월 2.3%에서 2017년 4월 23.8%, 2017년 7월 19.4%로 상승함
-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16년 말 26.7%에서 2017년 7월 22.1%로 하락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안보 이슈로 인한 중국 리스크, 한미 FTA 재협상 등은 우리나라 수출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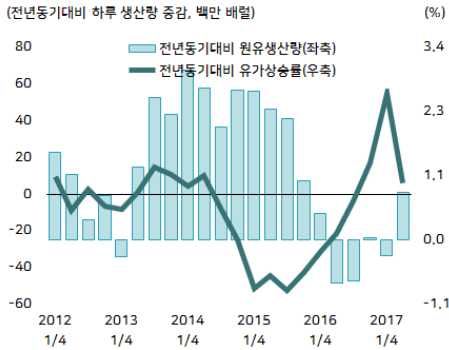
〈그림 I-14〉 우리나라 총수출액과 미국에 〈그림 I-15〉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과 수출 비중



바.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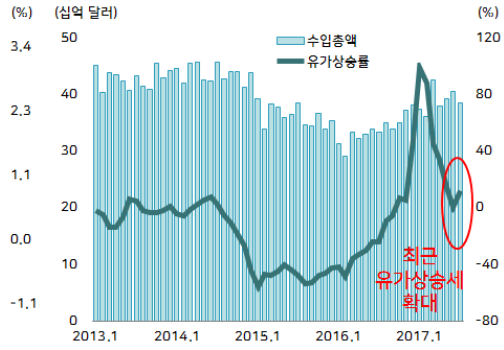
- 세계경제 회복세는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원유생산량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전년동기대비 원유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유가 상승률은 하락하는 공급 요인에 의한 유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8년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내외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은 순수출 감소,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수입의 50% 이상을 원유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유가가 상승할 경우 순수출은 감소할 것이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짐(〈그림 I-17〉 참조)

〈그림 I-16〉 원유생산량 증감과
유가 상승률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그림 I-17〉 유가 상승률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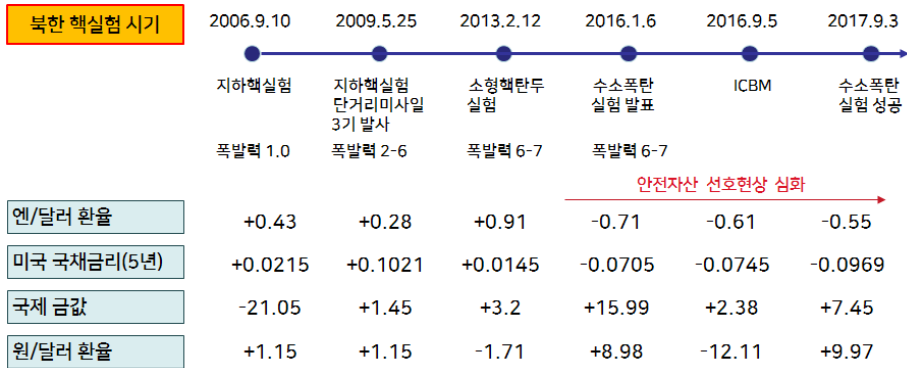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관세청

사. 북한 핵실험과 금융시장 변동성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북한의 핵실험 전후 주요 금융변수의 변동성을 비교한 결과 2016년 1월 핵실험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확대되고 있음(〈그림 I-18〉 참조)
 -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가치와 국제 금값, 미국 국채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원화가치는 약화됨
-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원화가치 약세가 확대될 경우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고 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미 금리차 역전에도 자본유출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원화가치 강세임

〈그림 I-18〉 북한 핵실험 시기와 금융시장 변동

(단위: %, %p)



주: 전일종가대비 변동폭

자료: Bloomberg

3. 2018년 경제 전망

가. 경제성장률

- 2017년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에도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재화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확대에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3/4분기까지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였음
 - 2017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 및 고용 확대 정책, 10월 장기 연휴기간 국내외 여행 증가 등으로 2.3% 증가할 전망이다
 - 2017년 3/4분기까지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었으나 물가오름세 확대에 따른 실질구매력 하락,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2.2% 증가함
 - 2017년 건설투자는 SOC 예산 축소 및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어 7.5% 증가할 전망이다
 - 2017년 3/4분기까지 건설투자는 2015~2016년에 급증한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 등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함

○ 2017년 설비투자는 수출 증가, 세계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5.8% 증가할 전망이다

– 2017년 3/4분기까지 설비투자는 세계 IT 업황 호조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증가로 제조장비 도입 등 대규모 기계류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하였음

○ 2017년 재화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 및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로 5.1% 증가할 전망이다

– 2017년 3/4분기까지 재화수출은 유가 상승, 세계 IT 업황 호조 등으로 석유류 및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함

〈표 I-2〉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²⁾	연간(E)	연간(F)
실질 GDP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2.9 (1.1)	2.7 (0.6)	3.6 (1.4)	3.0	2.7
민간소비	2.2	2.3	3.5	2.7	1.5	2.5	2.0	2.3	2.4	2.3	2.4
설비투자	4.7	-4.6	-2.9	-3.9	2.0	-2.3	14.4	17.2	16.8	15.8	3.2
건설투자	6.6	9.0	10.6	11.2	11.6	10.7	11.3	8.0	7.5	7.5	0.5
재화수출	-0.6	0.4	2.3	3.9	2.1	2.2	6.6	2.0	6.8	5.1	3.2
재화수입	0.7	1.8	3.7	5.3	3.7	3.6	10.9	7.8	8.8	8.2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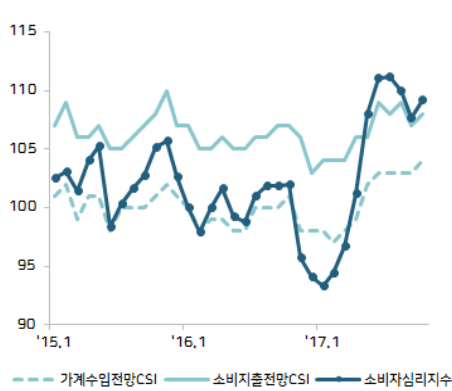
주: 1) 보합연구원 추정치(2015(E)) 및 전망치(F)임

2) 속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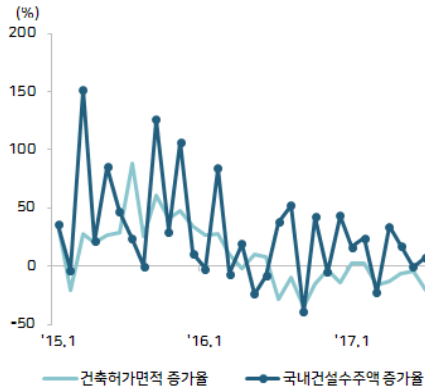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18년 국내총생산은 그동안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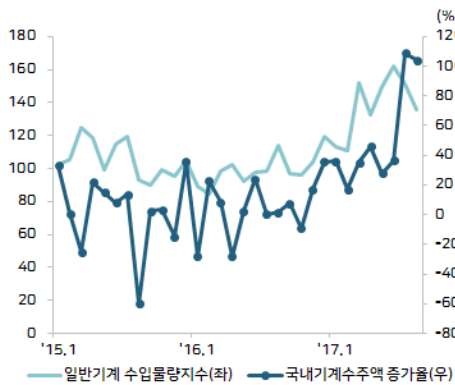
- 2018년 민간소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에 힘입어 2.4% 증가할 전망이다
 - －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여건 개선 정책 및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가계소득 기반 강화 정책 등으로 예상되는 가계소득 증가는 민간소비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한편,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물가상승세 확대에 따른 실질소득 개선 미흡 등은 민간소비 개선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건설투자는 2016년 이후의 건축착공면적 감소, SOC 예산 축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으로 0.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 2018년 SOC 예산(안)이 전년대비 20% 축소 편성되었고, 플랜트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에 따른 주택금융 공급 축소로 인해 주택수요 감소가 예상됨
- 2018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업황 호조에 따른 관련 투자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압력 및 기저효과로 인해 3.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글로벌 수요 증가 지속 및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책 등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한편, 2017년 IT 부문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조정압력 및 기저효과 등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재화수출은 세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 추가 상승 억제, 기저효과, 수출 주력품목의 단가 하락 등으로 인해 3.2% 증가할 전망이다
 - － 세계경제 성장 및 신흥국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교역량 증가, 세계 IT 업황 호조 지속 등은 수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 한편,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악화 및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단가 하락 및 수요 감소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I-19〉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 전망
및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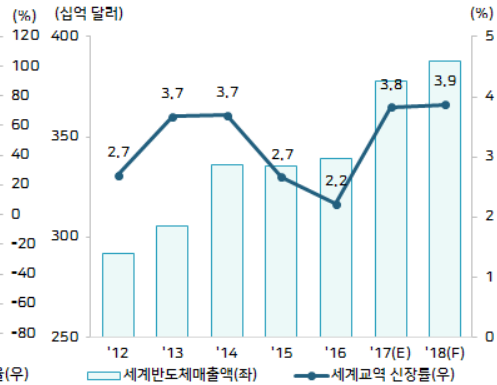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20〉 국내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 I-21〉 일반기계 수입물량지수 및
국내 기계수주액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 I-22〉 세계 반도체 매출액 및
세계교역 신장률

자료: IMF, Statistic

나. 물가상승률

- 2017년 소비자물가는 기초적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상승압력으로 2.0% 상승할 전망이다
- 2017년 1분기,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 및 신선식품 가격 상

승 등 공급 측 상승압력에 따라 각각 2.1%, 1.9% 상승함

-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생산량 감소, 세계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어획량 감소 등으로 신선식품 공급이 감소하여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함

○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2017년 1분기, 2분기 각각 1.5%, 1.4%를 나타내며 수요 측 상승압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3〉 소비자물가 상승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연간(F)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0.9	0.8	0.7	1.5	1.0	2.1	1.9	2.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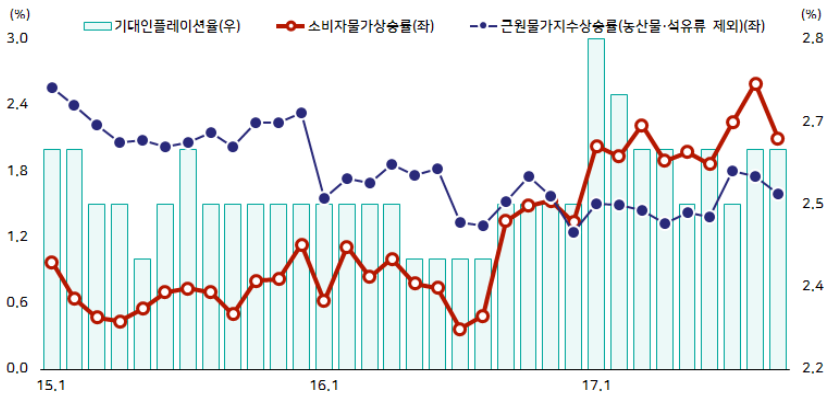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2018년 소비자물가는 가계소득 증가로 총수요 압력이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인한 공급 측 영향력 감소로 1.9% 상승할 전망이다

- 정부의 각종 고용여건 개선 정책으로 임금 상승세가 확대되어 민간소비 증가 등 수요 측 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미국 셰일오일 증산에 따른 유가 추가 상승 억제 및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축소, 정부의 각종 물가안정정책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공급 측 상승압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단,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상 기후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음

〈그림 I-23〉 주요 물가지수 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다. 금리

- 국내 물가상승률 상승과 경제성장률 확대, 미국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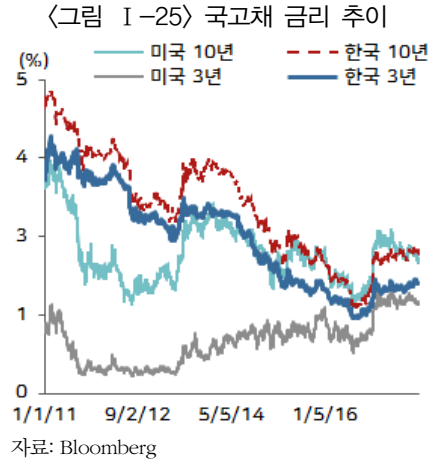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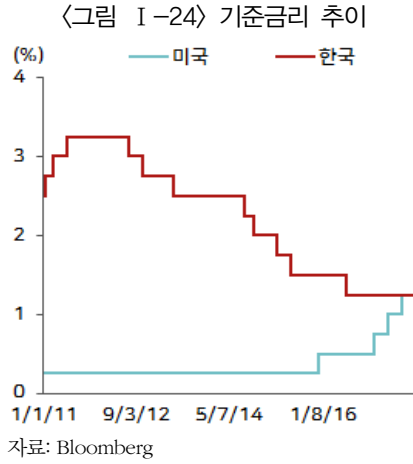
○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하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하고 있음

-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으로 인해 2018년 중 한 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함

- 국고채 금리(3년물)는 2017년 1.8%, 2018년 1.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경기 개선,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과 물가 상승세,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금리 상승세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반면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북핵 리스크, 중국 리스크 확대에 의한 경기 둔화 우려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표 I-4〉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기준금리 전망

(단위: %)

투자은행	2017. 3Q	2017. 4Q	2018. 1Q	2018. 2Q
BoA-ML	1.25	1.25	1.50	1.50
Barclays	1.25	1.25	1.50	1.50
Goldman Sachs	1.25	1.25	1.50	1.50
HSBC	1.25	1.25	1.25	1.50
JPMorgan	1.25	1.25	1.25	1.50
UBS	1.25	1.25	1.25	1.50

주: 2017년 8월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Ⅱ. 거시경제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1.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6년 5.42%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일본(4.48%), 독일 (4.07%)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2007년 6.8%, 2014년 5.6%로 감소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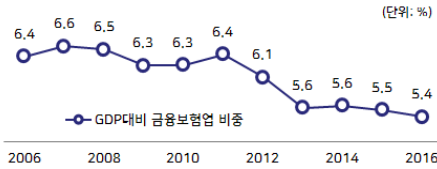
–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비 등), 순기타생산세, 영업잉여로 구성됨

○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을수록 금융·보험업이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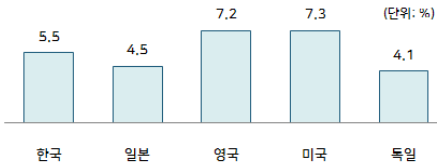
■ 2017년 2/4분기 보험산업 자산 규모는 1,077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가계금융 자산의 31.7%를 보험/연금 자산이 차지, 국민의 주요 저축, 위험보장 수단으로 정착함

○ 2011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 규모는 443조 원, 132조 원이었으나 2017년 2/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산 규모는 813조 원, 264조 원으로 증가함

〈그림 II-1〉 우리나라 GDP 대비 금융·보험업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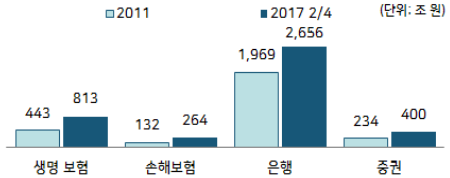


〈그림 II-2〉 2015년 주요국 GDP 대비 금융·보험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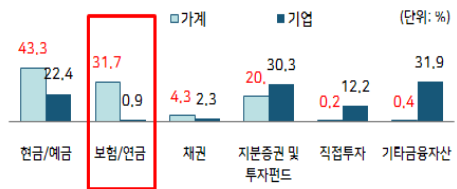


자료: 각국 국민계정

〈그림 II-3〉 2017년 2/4분기 업권별 자산 규모 비교



〈그림 II-4〉 2017년 2/4분기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 비교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2017. 6)

2. 보험산업 성장성

■ 경제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보험계약실적(신계약 건수)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그림 II-5〉 참조)

○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계약 기준 보험계약 실적은 2007년 2,820만 건에서 2016년 1,440만 건으로 감소함

■ 생명·손해보험 침투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은 둔화되고 있음(〈그림 II-6〉 참조)

○ 침투도(Penetration Ratio)는 한 나라의 보험료 규모를 경제규모(GDP)로 나눈 값으로 침투도가 높을수록 성장가능성이 낮고, 침투도가 낮을수록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2년 7.8%에서 2015년 7.5%로 감소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아 성장여력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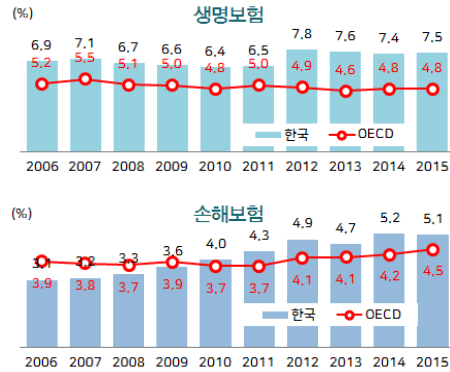
- 손해보험 침투도는 2009년까지 OECD 평균 수준보다 낮았으나 2010년 이후 OECD 평균보다 상승함

〈그림 II-5〉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 우리나라 보험침투도 비교



자료: OECD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음

3. 금리 상승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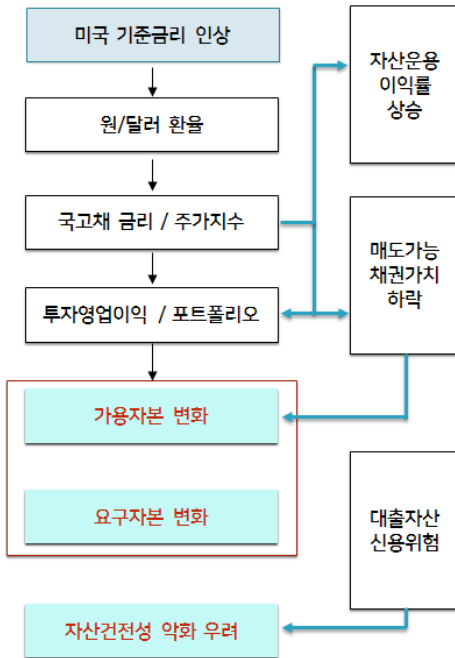
가. 보험회사 건전성

- 금리 상승은 자산운용이익률이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 이외에도 보유채권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가용자본 감소,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자산 건전성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한국은행은 보험회사 채권평가손실 규모가 2016년 말 금리수준에 비해 50bp 금리가 상승할 경우 9.6조 원, 150bp 상승할 경우 28.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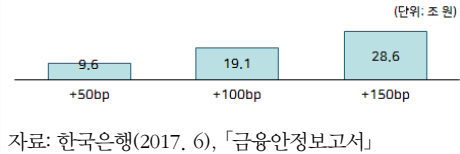
- 채권평가손실 확대로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16년 말에 비해 29.7%p (50bp 금리 상승 시), 88.2%p(150bp 금리 상승 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2/4분기 보험회사의 운용자산대비 대출채권 비중은 생명보험 18.9%, 손해보험 28.3%임

■ 향후 회계제도 개정,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낮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금리 상승 영향은 클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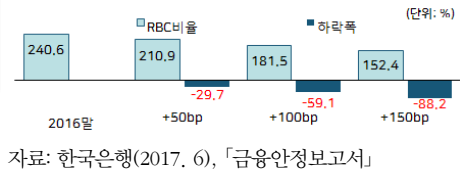
〈그림 II-7〉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계약실적



〈그림 II-8〉 금리 상승 시 보험회사 채권평가손실 규모 추정치



〈그림 II-9〉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하락폭 추정치



〈표 II-1〉 2017년 2/4분기 보험회사 운용자산대비 대출 비중

구분	약관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합계
생명	6.6	5.8	3.9	2.5	18.9
손해	5.3	11.6	1.6	9.7	28.3

자료: 금융감독원

나. 생명보험 해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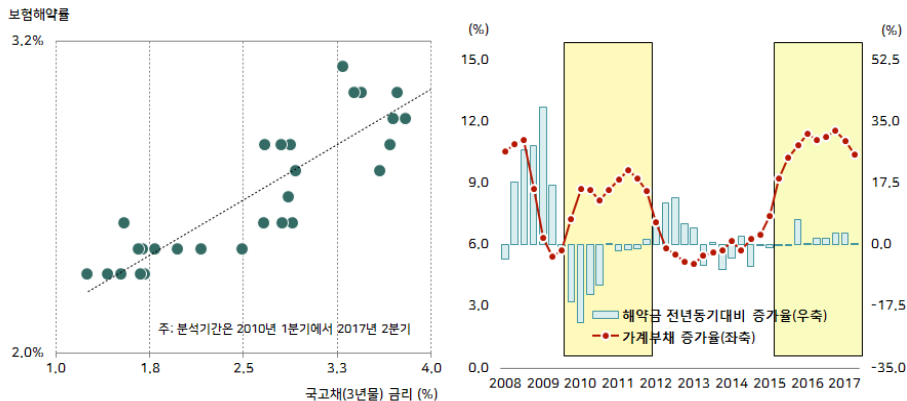
■ 금리 상승은 생명보험 해약률 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는 보험 해약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2010년 1/4분기에서 2017년 2/4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보험해약률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그림 II-10〉 참조)
-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았던 2010~2012년, 2015~2017년 해약금액 증가율은 낮았음(〈그림 II-11〉 참조)

■ 해약금액 증가, 해약률 상승은 가계의 건강 및 소득 위험 확대를 의미함

- 보험계약은 장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가 목적임
- 사망·상해보험은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고 개인연금, 저축성보험 등은 개인의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흐름이 중단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임

〈그림 II-10〉 국고채 금리와 보험 해약률 〈그림 II-11〉 가계부채 증가율과 해약금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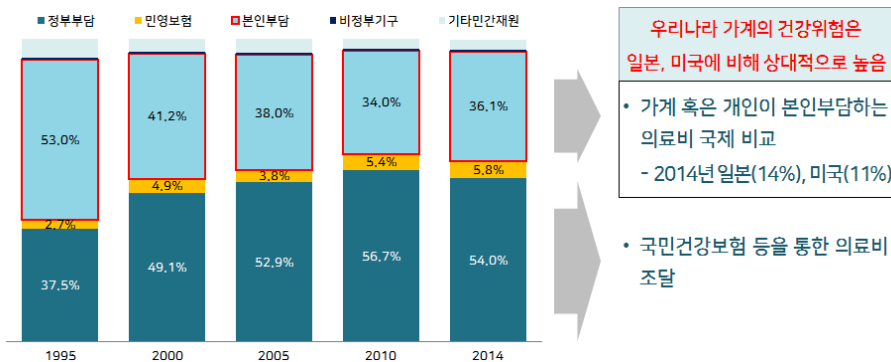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위험보장 공백

- 개인이 직접 부담(Out of Pocket Expenditure)하는 의료비 지출 비중이 2014년 36%로 미국(11%), 일본(14%)에 비해 높아, 보험을 해약할 경우 가계의 건강위험은 더 커질 수 있음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은 36.1%로 일본 14%, 미국 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가계의 건강위험이 상대적으로 큼(〈그림 II-12〉 참조)
 -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한 의료비 조달 비중은 2014년 54.0%, 민영보험을 통한 의료비 조달 비중은 5.8%임
- 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약이 증가할 경우 상해와 암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더 클 것임
 -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지출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건강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계약이 없을 경우,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병원 치료비 규모가 커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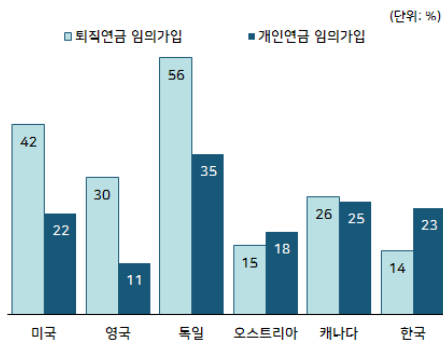
〈그림 II-12〉 의료비 재원조달 비중



자료: WHO(2016), National Health Account

- 사적연금 가입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원금과 이자부담 증가는 가계의 사적연금 가입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시급한 자금사용처가 많기 때문임(〈표 Ⅱ-2〉 참조)

〈그림 Ⅱ-13〉 주요국의 자발적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주: 1) 2013년 기준

2)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3) 우리나라를 제외한 비교 대상 국가들은 퇴직 연금을 임의로 가입하고 있음

자료: OECD(2015c), p. 187; OECD(2011), p. 173

〈표 Ⅱ-2〉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소득이 너무 낮아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더 시급하게 돈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노후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 젊어서
전체	1,211	24.7	49.5	13.9
20대	225	31.7	10.4	46.8
30대	277	23.7	47.1	18.0
40대	293	13.8	76.1	3.3
50대	224	22.0	64.6	1.0
60세 이상	194	37.4	40.6	0.6

자료: 보험연구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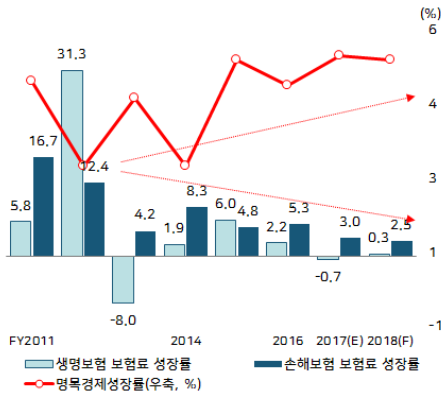
Ⅲ.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가.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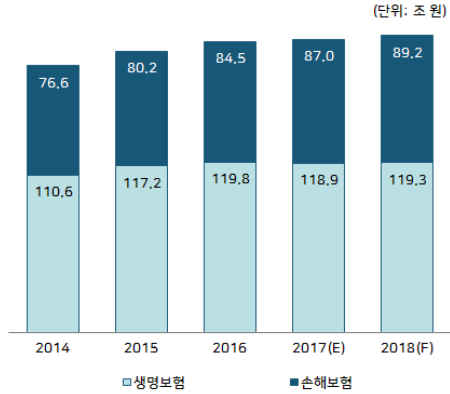
- 저성장 지속과 시장포화, 제도적 요인으로 2017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은 0.81%, 2018년 1.24%로 전망됨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0.7%, 손해보험 3.0%로 전년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119.3조 원(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89.2조 원(2.5%)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2년 2.8%에서 2017년 5.4%, 2018년 5.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2년 31.3%, 2014년 1.9%에서 2017년 -0.7%, 2018년 0.3%로 성장세가 둔화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012년 12.4%, 2017년 3.0%, 2018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1〉 명목경제성장률과 보험료 성장률 전망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그림 Ⅲ-2〉 생명 및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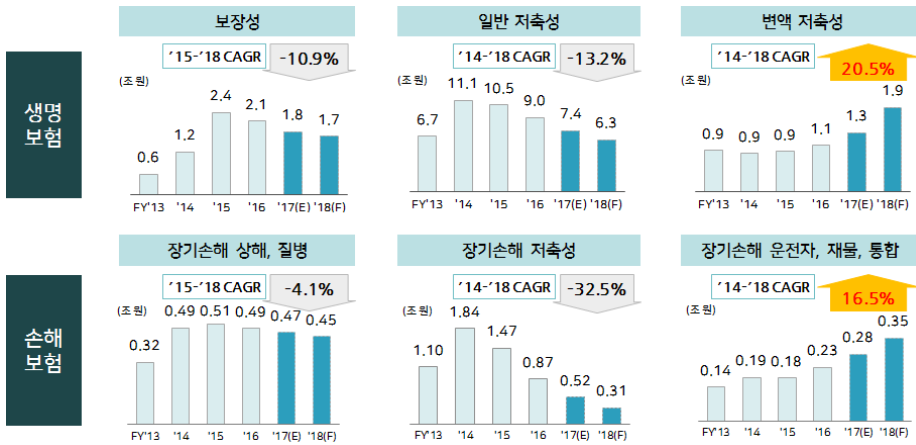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 손해보험의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을 제외한 초회보험료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함
- 변액저축성 초회보험료는 2015년 9천억 원 수준에서 2017년 1조 3천억 원, 2018년 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2014년부터 2018년까지 CAGR 20.5%), 장기손해보험 운전자·재물·통합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1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생명보험 보장성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상해·질병보험 보험료는 각각 10.9%, 4.1% 감소할 것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과 장기손해 저축성보험은 각각 13.2%, 3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주: 1)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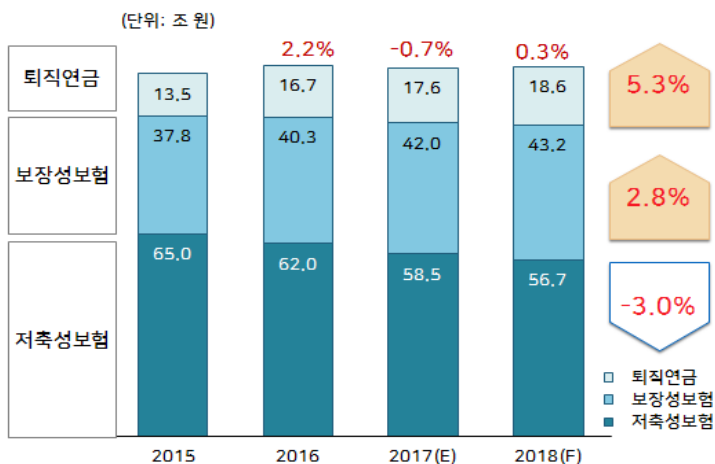
가. 개관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저축성보험의 감소와 보장성보험, 퇴직연금의 증가세 둔화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신(新) 종신보험의 신규 수요 둔화, 예정이율 하락에 따른 전년도 판매 증가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이 부진하고, 변액저축성보험도 감소하여 5.8% 감소가 전망됨
 - 퇴직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세와 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5.5% 증가가 전망됨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변액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저축성보험의 부진이 개선되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은 최근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종신보험 신규 수요가 둔화되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또한 제한적 성장에 그치면서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으로 3.0%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 일반저축성보험은 공급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2017년 7.9%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7.0% 감소할 전망이다
 - －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면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퇴직연금을 제외²⁾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에는 1.8% 감소에 이어 2018년에도 0.6%의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2) 퇴직연금의 경우 계열효과가 크고 각 회사의 판매 전략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전망의 불확실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Ⅲ-4〉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



주: 붉은 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Ⅲ-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E) ¹⁾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1,172,137	6.0	1,198,112	2.2	1,189,197	-0.7	1,192,867	0.3
(퇴직연금 제외)	1,035,146	4.8	1,030,861	-0.4	1,012,705	-1.8	1,007,064	-0.6
보장성보험 ²⁾	377,794	9.2	402,894	6.6	420,421	4.4	432,238	2.8
저축성보험 ³⁾	649,618	2.6	620,348	-4.5	584,643	-5.8	567,244	-3.0
일반저축성	460,620	4.5	442,573	-3.9	407,582	-7.9	379,124	-7.0
변액저축성	188,998	-1.8	177,774	-5.9	177,061	-0.4	188,121	6.2
퇴직연금	136,990	15.9	167,252	22.1	176,491	5.5	185,803	5.3
기타 ⁴⁾	7,735	-5.1	7,619	-1.5	7,641	0.3	7,582	-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3) 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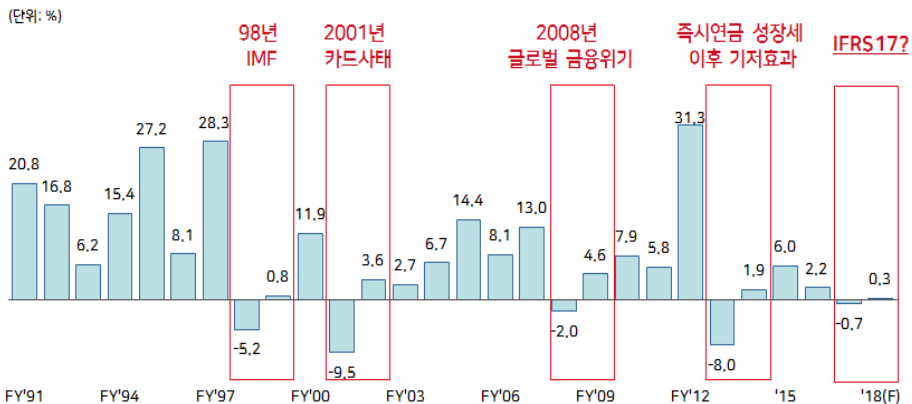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과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를 기록한 다음 해에 신상품 출시, 기저효과 등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경우는 1998년(-5.2%), 2001년(-9.5%), 2008년(-2.0%), 2013년(-8.0%) 네 차례이고 2017년 전망치 -0.7%를 포함하면 다섯 차례임
- 1990년 이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다음 해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8년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치(0.3%)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수입보험료 증가율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회계제도 및 감독제도 변화, 저금리 환경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적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질적성장 중심의 성장전략 조정이 불가피해 보임

〈그림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³⁾

- 2017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신(新) 종신보험의 신규 수요 둔화와 전년도 예정이율로 인한 기저효과로 4.4%일 것으로 전망됨
-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마케팅 과열로 불완전판매 민원 증가와 이에 대한 영업

3)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관행 개선 조치,⁴⁾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⁵⁾ 등으로 보장성보험의 신규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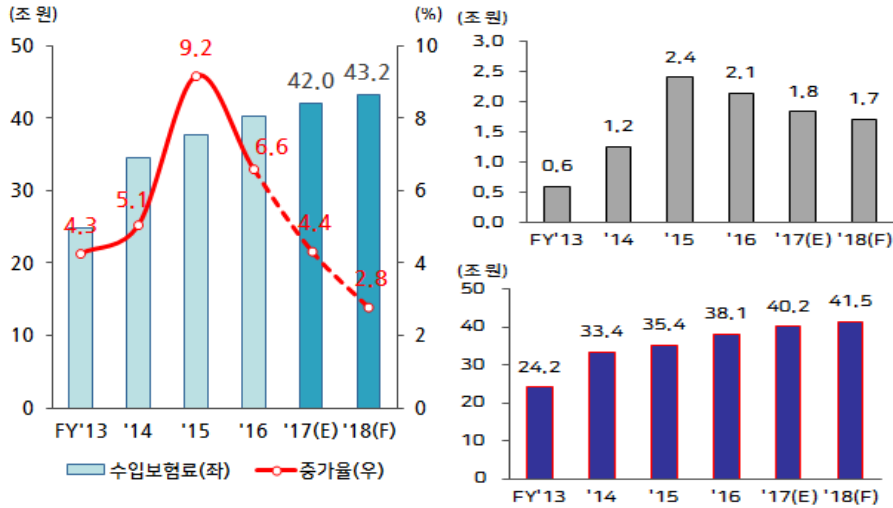
- 또한 2016년 4월 예정이율 인하를 앞두고 급증한 절판 마케팅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침

■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종신보험 판매 둔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수익성 개선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판매 확대 전략을 지속하고 있음
 - － IFRS 17이 시행되면 보장성보험 상품은 대부분의 수입보험료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어 저축성보험 상품보다 손익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 가치를 갖고 있음
 - － K-ICS는 보험회사의 노출 위험에 따른 요구자본량을 크게 높이고 있어 보험회사는 장기자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연금전환 종신보험, 저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등 신(新) 종신보험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 심화, 질병보장에 대한 니즈 확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 10. 12), “종신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 참조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10. 11), “과징금 부과기준 전면 개편 등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참조.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시 책정하는 과징금을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인상함

〈그림 Ⅲ-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Ⅲ-7〉 보장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저축성보험⁶⁾

■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의 감소로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일반저축성보험은 2016년 일부 보험회사의 판매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 제혜택 축소 등으로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등의 영향으로 0.4% 감소할 것임

6)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회복으로 2017년에 비해 상승한 3.0%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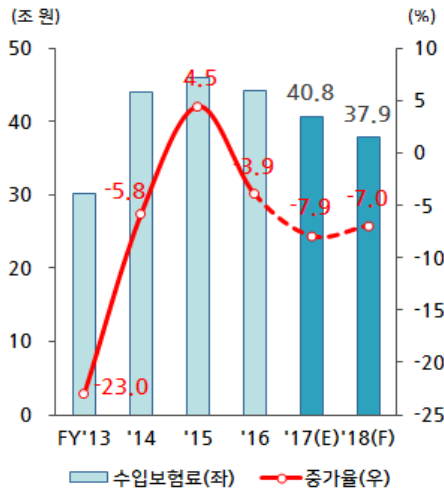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으로 2016년 4.5% 감소한데 이어 2017년에도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보험료 감소세는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8년에는 회계 및 감독제도 변화,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변액저축성보험 성장세가 소폭 회복되면서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 수수료 인하에 따른 설계사 판매유인 감소,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7.0% 감소할 전망임

-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요건 중 일시납 한도가 1억 원으로 감소하고, 저축성보험에는 월 적립 150만 원 한도 요건이 추가되어 저축성보험 수요가 둔화됨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⁷⁾으로 저축성보험 판매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사들의 일반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약화될 것임
- IFRS 17 도입 시 장기 저축성보험은 자본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저축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준비금이 부담될 수 있음
- K-ICS는 보험회사의 노출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량을 크게 높이고 있으며, 장수리스크 추가 시 요구자본 부담이 증가할 것임

7)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개정, 기존에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올해 1월부터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하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한다'고 개정함. 즉,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하락하여 가입자의 납입완료 시점(7년납 이상은 7년 시점)에 환급률은 100%가 되도록 설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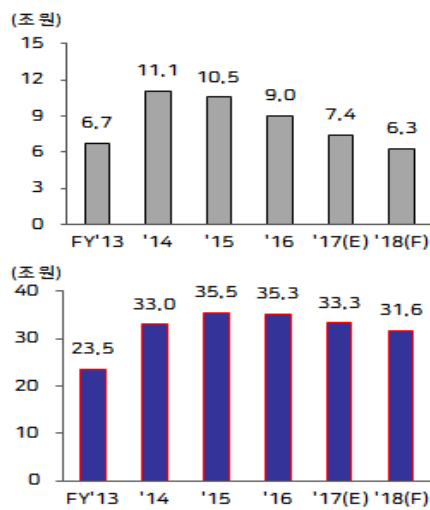
〈그림 Ⅲ-8〉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9〉 일반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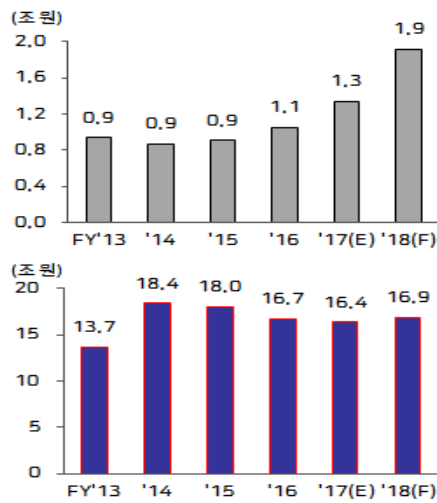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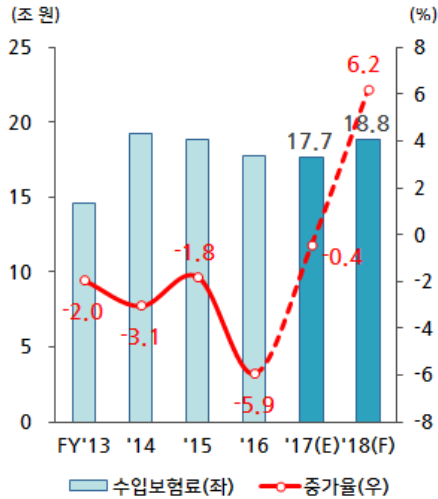
■ 2018년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가 상승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변액저축성보험은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 17하에서 일반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부담이 적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은 신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음

○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소비자들의 위험자산 수요가 소폭이나마 확대되고 있어 변액저축성보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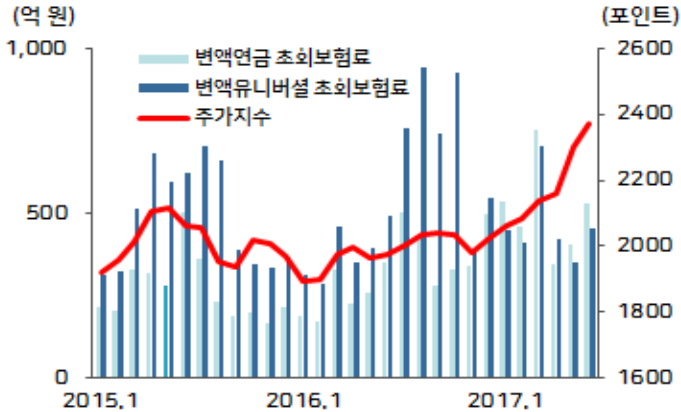
〈그림 Ⅲ-10〉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그림 Ⅲ-11〉 변액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2〉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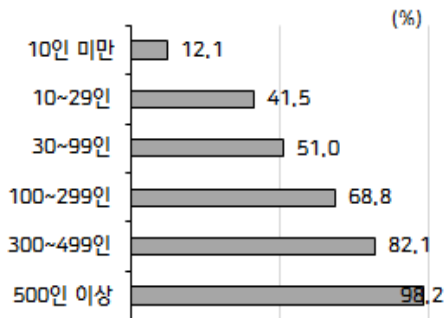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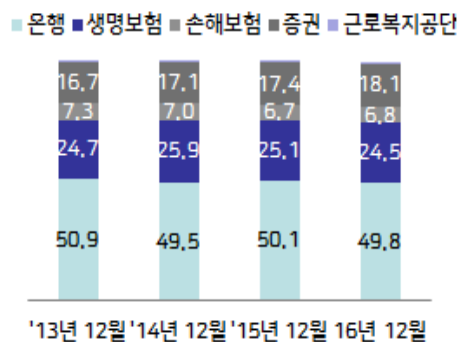
라. 퇴직연금

-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지속적인 성장세와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5.5% 증가가 전망됨
 - 기존 IRP 가입 대상은 근로자에 국한되었으나, 2017년 7월부터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군인, 자영업자 등 거의 모든 소득근로자로 확대되어 추가 수요가 예상됨
 - 그러나 IRP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으로 유입되는 퇴직연금 규모가 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베이비부머 은퇴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5.3%의 완만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등의 환경변화도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보유계약 이탈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의 높은 퇴직연금 가입률로 신규 가입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이 기대됨

〈그림 Ⅲ-1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 〈그림 Ⅲ-14〉 금융업권별 적립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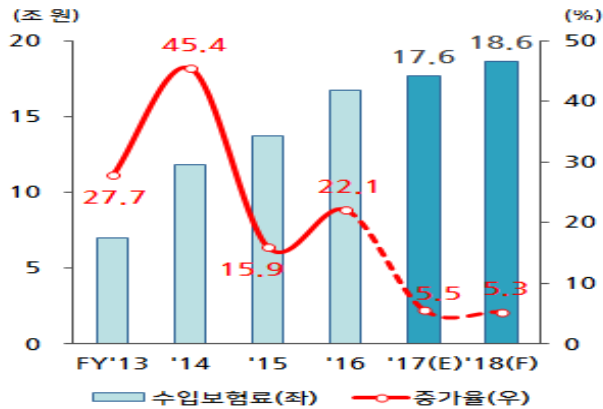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Ⅲ-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전망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개관

- 2017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부문 및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 둔화로 전년대비 2.3%p 감소한 3.0% 증가가 예상됨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 공시기준 이율 하락 등으로 저축성보험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운전자·재물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성장으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성장 정체와 가계의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개인연금의 성장 저하로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가차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요율 인하의 여파로 전년대비 4.0%p 하락한 5.4% 증가가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에 의한 특
종보험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4.8% 증가할 전망이다

〈표 Ⅲ-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E) ¹⁾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80.2	4.8	84.5	5.3	87.0	3.0	89.2	2.5
(퇴직연금 제외 시)	(73.9)	(5.2)	(76.6)	(3.6)	(79.1)	(3.3)	(80.9)	(2.3)
장기손해보험	46.6	4.9	47.8	2.6	49.2	3.0	50.2	2.1
연금부문	10.4	-0.9	11.8	13.7	11.6	-1.4	11.9	1.8
자동차보험	15.0	10.7	16.4	9.4	17.3	5.4	18.1	3.2
일반손해보험	8.3	1.8	8.5	2.6	8.9	4.8	9.3	4.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퇴직연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장
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7
년 대비 0.5%p 하락한 2.5%일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및 보험니
즈 변화 등으로 인해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나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이 계속되면서 전년대비 감소한 2.1% 증가가 전망됨

－ 한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료 및 수요 불확실성
등은 성장세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의 수요 위축이 지속되었으나 퇴직연금시장
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8% 증가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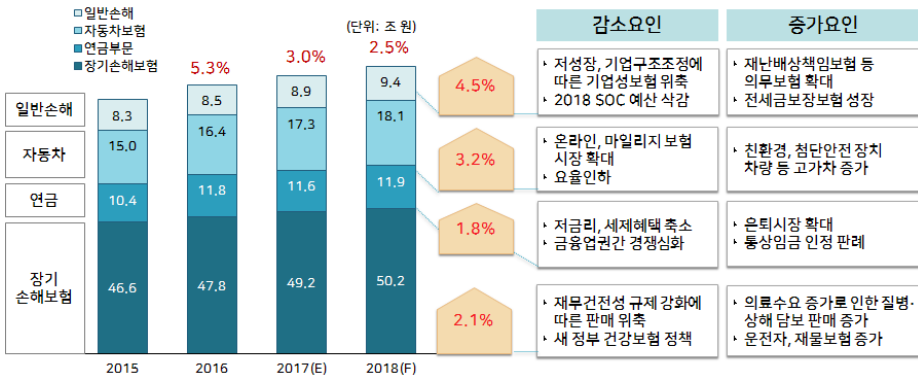
－ 본격적인 베이비부머 은퇴, 개인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한 은퇴시장 확대는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견조한 차량대수 증가 및 고가차 증가, 가입금액 고
액화 등에도 불구하고 마일리지보험 가입 확대, 2017년 대형사 중심의 요율

인하 등에 따라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된 3.2% 증가가 전망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성장 및 조선·해운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Ⅲ-16〉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과 증감 요인



주: 붉은 색 글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17년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성장세 둔화 및 저축성보험감소 지속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상해·질병보험은 고령자 및 유병자 대상 간편심사보험 판매 증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요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가입률 및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⁸⁾에 따른 신규 수요 제한 등으로 전년대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 8. 9),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 운전자·재물보험 등의 경우 차량사고 분쟁 증가, 배상책임보험시장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차량사고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비용손해, 배상책임담보 등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의 판매가 증가함⁹⁾
- 장기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¹⁰⁾ 공시기준이율 하락,¹¹⁾ 예정된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등으로 전년대비 23.9% 감소가 예상됨
 -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시이율이 하락하여 신계약 판매가 위축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IFRS 17 도입에 대비하여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표 Ⅲ-3〉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46.6	4.9	47.8	2.6	49.2	3.0	50.2	2.1
질병 및 상해	24.3	14.0	27.1	11.7	29.8	9.8	31.5	5.6
저축성 보험	10.5	-11.0	8.2	-21.2	6.3	-23.9	4.8	-24.0
운전자·재물 등	11.8	4.2	12.4	4.8	13.1	6.0	14.0	6.4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장성보험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2.1%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는 2017년 성장률 대비 0.9%p 하락한 것임

9)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7. 5. 30),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은 「생활밀착형 비용보장 상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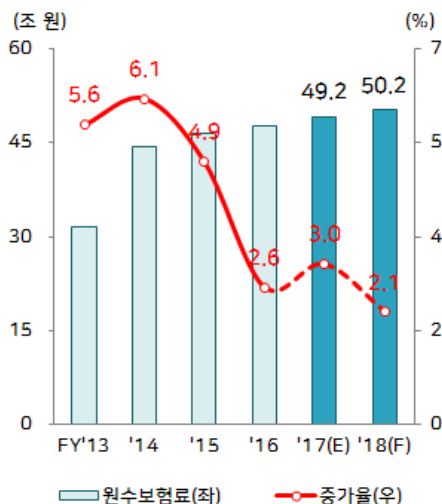
10)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017년 1월 시행)을 통해 평균공시이율 기준 납입기간 완료 시점(최대 7년)에 환급률 100% 이상 조건을 추가함

11)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2.43%), 2017년 1월(2.3%), 2017년 2월~10월(2.4%), 2017년 11월(2.5%)

- 장기상해·질병보험 증가율은 2017년 대비 4.2%p 하락한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고령사회 진입¹²⁾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유병자보험 등 간편심사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등에 대한 신규 수요, 보험료 현실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신규 가입여력 저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가능성, 신규 가입 및 계약유지 불안정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전년과 유사하게 2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세제혜택 축소,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한 신규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저금리에 따른 금리리스크 부담, 예상되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어 2018년에도 보장성보험위주 판매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수요 확대와 2018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품 공시이율에 영향을 미쳐 저축성보험 보험료를 인하시킬 수 있으나 실질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 판매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2018년에도 전년대비 6.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운전자보험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자 인식 개선, 보험회사의 적극적 판매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재물보험은 실손보상 상품 증가에 따른 상품성 제고, 배상책임보험시장 확대, 손해보험회사의 마케팅 강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
 - 다만 만기 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 여부는 성장세를 제한할 수 있음

12) 2017년 8월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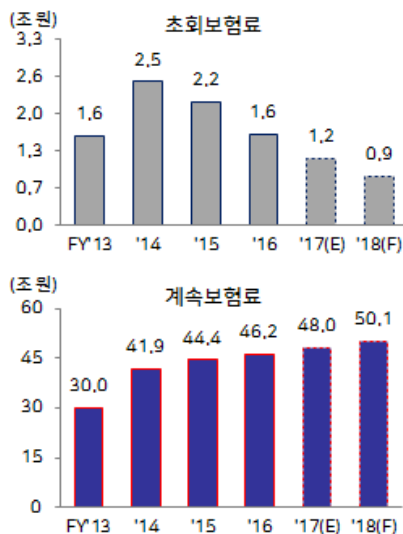
〈그림 Ⅲ-17〉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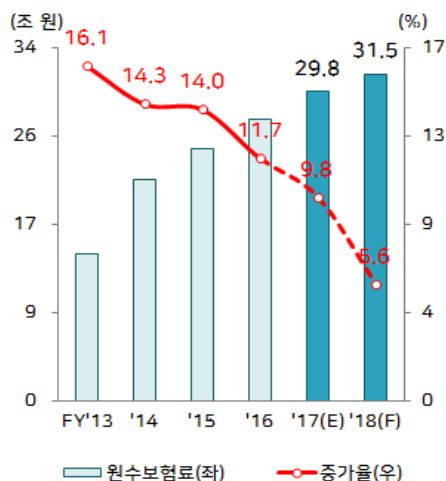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8〉 장기손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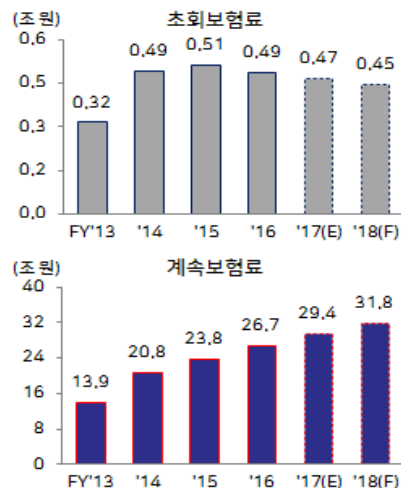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19〉 질병 및 상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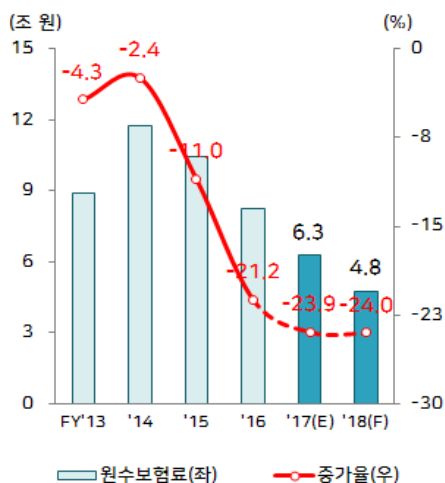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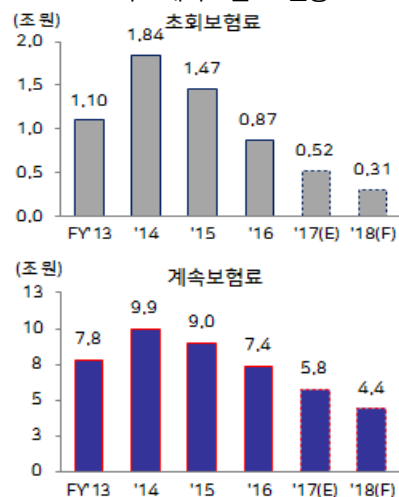
〈그림 Ⅲ-20〉 질병 및 상해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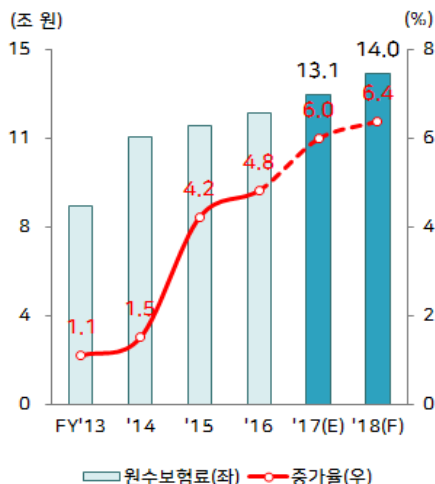
〈그림 Ⅲ-21〉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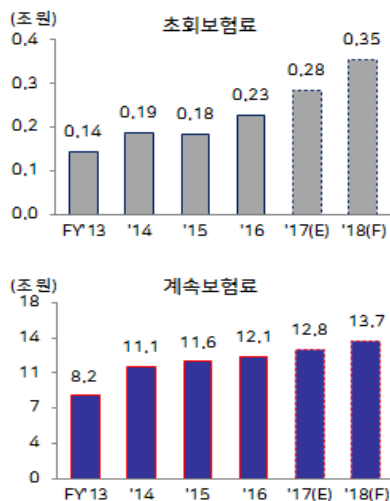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22〉 저축성보험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23〉 운전자·재물보험 등
원수보험료 전망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24〉 운전자·재물보험 등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연금부문

- 2017년 연금부문은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연금의 신규 수요 위축 및 퇴직연금 성장정체 등으로 1.4% 감소가 예상되나, 2018년에는 은퇴시장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의 성장으로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연금부문은 세제혜택 요건 강화,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계 처분가능소득 정체로 인한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¹³⁾ 개인연금계좌(IRP) 시행에 따른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으로 4.3% 감소가 예상됨
 - － 저금리 지속으로 공시이율이 낮아지면서 연금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최저보증이율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본부담도 커짐
 - 퇴직연금의 경우 IRP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DC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퇴직연금 성장세는 정체(0.0%)될 것으로 전망됨
 - － 보험회사는 DB형 이율보증상품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으나, 퇴직연금시장이 수익률에 민감한 DC형 및 IRP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표 Ⅲ-4〉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연금부문	10.4	-0.9	11.8	13.7	11.6	-1.4	11.9	1.8
개인연금	4.0	-2.1	3.9	-3.6	3.7	-4.3	3.5	-5.0
퇴직연금	6.4	-0.1	7.9	24.7	7.9	0.0	8.3	5.0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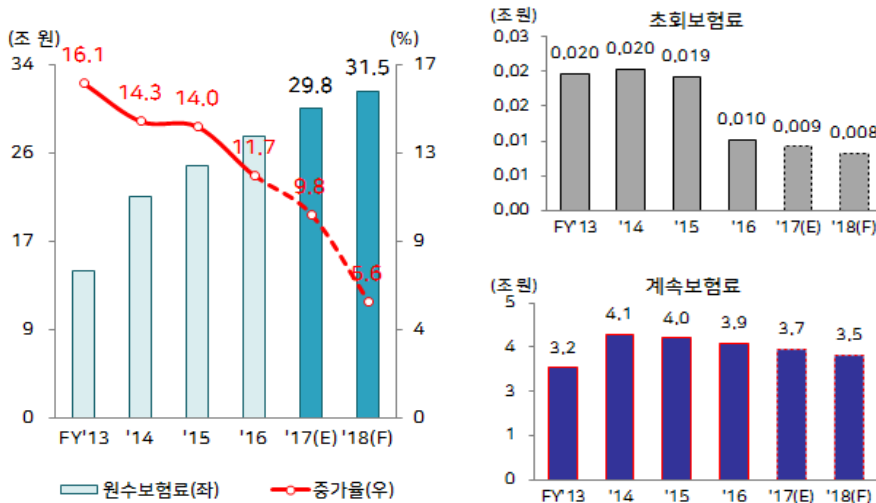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3) 2017년 4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항에 따라 저축성보험 이자소득 비과세요건이 일시납 1억 원, 월 적립식 150만 원으로 강화됨

■ 2018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5.0% 감소가 전망됨

-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전 세대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상품 경쟁력 약화,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세제혜택 축소로 상품 메리트가 약화됨
- 또한 저축성상품 설계기준 변경(2017. 1.)으로 사업비가 감소하고 설계사의 판매 유인이 약화되면서 초회보험료 감소세는 심화되고 있고 2015년부터는 계속보험료마저 감소세를 보임
 - 기존 고객의 이탈도 개인연금 보험료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침
 -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상품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으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그림 Ⅲ-25〉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그림 Ⅲ-26〉 개인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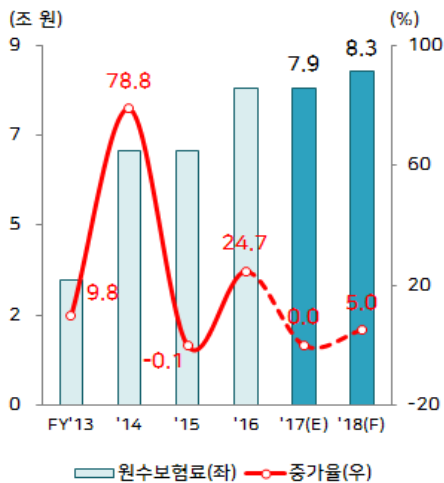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손해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은퇴시장 확대로 전년대비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부터 베이비붐 세대¹⁴⁾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은퇴시장 확대,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대기업 통상임금 인정 판례 증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손해보험회사의 주요 시장인 대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포화수준에 달한 점, 저금리와 수익성 저하로 인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전략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Ⅲ-27〉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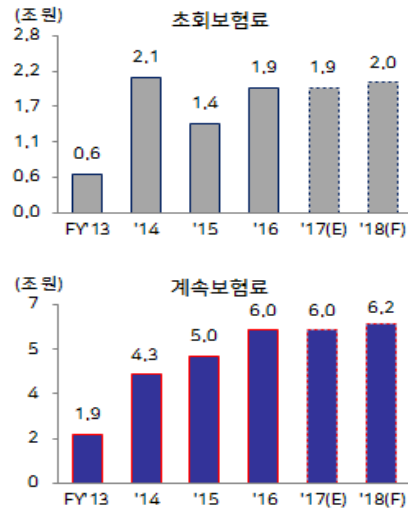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28〉 퇴직연금 초회·계속보험료 전망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5~63년생 세대로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58년생이 2018년 60세에 도달하면서 은퇴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라. 자동차보험

- 2017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가차량 증가 등의 성장요인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의 요율 인하 및 온라인 가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 2백만 대(2017년 6월 기준)를 넘어섰고,¹⁵⁾ 외산차 및 친환경 전기차 등 고가차량 증가로 대물담보 보장확대 수요가 증가함
 - 한편, 대형사 중심의 요율 인하, 온라인자동차보험 가입 확대, 마일리지 및 블랙박스 특약 가입 확대 등은 대당보험료 감소 요인임

〈표 Ⅲ-5〉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자동차보험	15.0	10.7	16.4	9.4	17.3	5.4	18.1	3.2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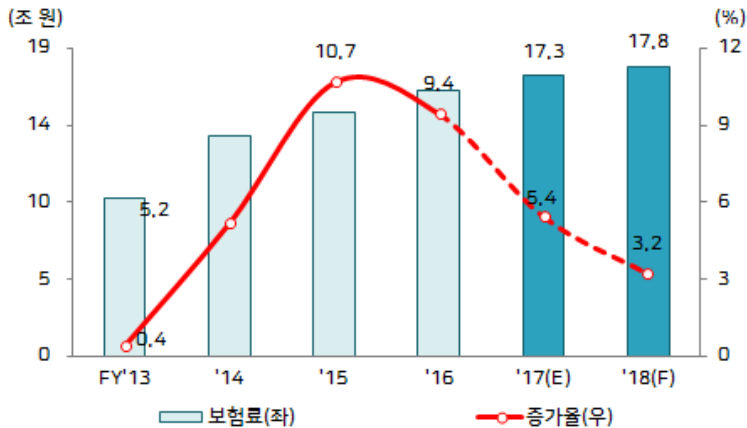
- 2018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세 지속, 고가자동차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요율 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16년 2/4분기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3.0%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차, 첨단자동차 등 고가자동차의 비중¹⁶⁾도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7. 14), “전기차 가파른 성장세, 5년 만에 35배 증가 - 2017년 6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 2백만 대 돌파”

1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7. 14)에 따르면, 2017년 6월 수입자동차 등록비중은 8.0%로 2012년 4% 이후 4년 6개월 만에 2배가 되었고, 전기차(0.07%)는 5년 만에 35배, 캠핑카는 약 6배 증가함

- 다만 고가의 첨단자동차 증가는 보험료 증가의 요인이 되지만 첨단자동차의 사고율 감소¹⁷⁾는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온라인 보험 판매 확대, 마일리지보험 특약 가입 확대¹⁸⁾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와 손해율이 낮아진 일부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가 지속되고 있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마일리지보험 등 운전자 성향을 반영하는 보험은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율을 감소¹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됨

〈그림 Ⅲ-29〉 자동차보험 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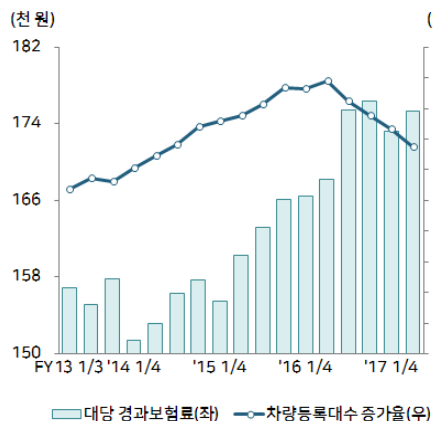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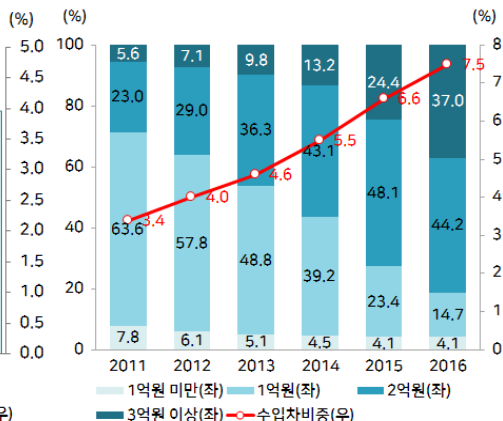
-
- 17) 보험개발원(2017. 9. 10), '충돌시험인프라 확충으로 첨단안전장치 사고방지효과 실증연구'에 따르면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 사고위험가능성 감소로 2.7~12.6%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18) 보험개발원(2017. 9. 23)에 따르면 2016년 말 개인용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비율은 36.3%(553만 대)였음
- 19) 보험개발원(2017. 9. 23)에 따르면 2015년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의 사고율은 15.7%로 특약 미가입자(24.2%)의 2/3 수준이었음

〈그림 Ⅲ-30〉 대당 경과보험료



자료: 통계청

〈그림 Ⅲ-31〉 대당 담보가입금액



자료: 보험개발원

마. 일반손해보험

■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및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재보험은 신규 수요 창출의 어려움, 손해율 안정에 따른 요율 인하 등으로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해상보험시장 축소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6년 조선·해운업 불황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 감소, 선박 과잉공급 등으로 침체되었던 해운·조선업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소폭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²⁰⁾
- 보증보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요 증가, 국내 건설수주 증가²¹⁾ 등으로

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10. 30), 「2017년도 3분기 조선해운시황」; BNK 금융경영연구소(2017. 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21) 건설산업연구원(2017. 6)은 2017년 건설수주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나 수주액이 비교적 양호하며,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5.5% 증가, 실질 투자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함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²²⁾ 및 의무화,²³⁾ 해외여행보험시장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8.3	1.8	8.5	2.6	8.9	4.8	9.3	4.5
화재	0.3	-2.1	0.3	-1.0	0.3	-1.5	0.3	-2.0
해상	0.7	-3.4	0.6	-14.3	0.6	2.0	0.6	2.0
보증	1.6	4.4	1.6	0.6	1.7	8.0	1.8	5.4
특종	5.7	2.0	6.0	5.4	6.3	4.5	6.6	4.7

주: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2017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낮은 손해율로 인한 요율 인하와 통상임금 인정 확대 및 최저 임금 인상 예상 등으로 인한 해외로의 공장 이전, 그리고 타 보험 등으로 이탈 지속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해상보험은 2017년 조선 수주점유율 세계 1위 회복,²⁴⁾ 세계 무역량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통상 2년 경과 후 실제 조선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년수준인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보증보험은 중금리 대출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²⁵⁾ 등의 신용보험 시장

2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2017. 10. 19 시행)으로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23) 2017년 1월 8일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2017. 1. 8)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음식점·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 개 업소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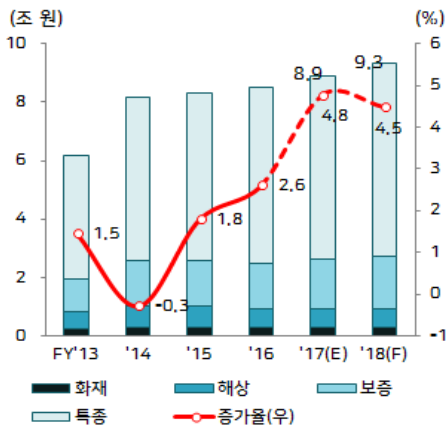
24) 한국일보(2017. 7. 3),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탈환..감원 등 암초 곳곳에”

확대 및 2017년 분양시장 성장에 따른 이행보증 수요 확대가 기대되지만 금리 상승, 8·2 부동산 안정화정책, 가계부채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으로 건설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²⁶⁾ 5.4% 증가할 전망이다

○ 특종보험은 손해배상책임 강화로 인한 배상책임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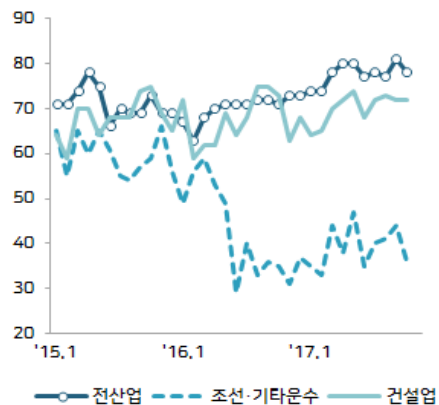
- － 2017년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확대 및 단체상해보험의 견조한 시장 확대 등이 증가 요인일 것으로 보임
- － 한편, 민간의 조립 및 건설공사 감소 추세,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단체상해보험 수요 불확실성,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Ⅲ-32〉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전망



주: 1) '17(E)와 '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2) FY'13은 2013년 4~12월 실적이고, 증가율은 2012년 4~12월 실적과 비교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Ⅲ-33〉 기업경기실사지수(BSI)¹⁾



주: 1)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향후 전망을 지수화함(기준은 100)
 자료: 한국은행

25) 2017. 6. 20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상품접근 가능성이 높아짐

26)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2017. 10. 30), “부동산 안정화정책 이후의 건설산업 대응 방안”

4. 요약

- 명목경제성장률은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시장의 높은 성숙도로 보험료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 2018년 경제성장률은 국내 경제성장 동인이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은 0.3% 증가한 119.3조 원, 손해보험은 2.5% 증가한 89.2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계제도 변화, 세제 및 수수료 체계 변화로 인한 저축성보험 감소세 심화가 보험산업 성장세를 제한함
 - 초회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은 2015년 18.3조 원에서 2018년 13.7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손해보험은 2015년 3.6조 원에서 2.9조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 저축성보험은 2018년 3.0% 감소할 것으로, 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은 2017년 23.9%, 2018년 24.0% 감소할 전망이다
- 금리 상승은 보험회사 건전성 저하, 가계의 부채부담 확대 및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위험보장 공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 금리 상승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을 상승시킴
 - 반면 보험회사가 매도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치가 하락하여 가용자본이 줄어들 수 있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음
 -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채부담 증가는 보험회사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채부담으로 취약계층이 증가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위험보장 공백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금리 상승은 해약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고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해약금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표 Ⅲ-7〉 거시경제 및 보험산업 전망 요약표

(단위: %, 조 원)

구분		2015	2016	2017(E)	2018(F)
경제성장률		2.8	2.8	3.0	2.7
명목경제성장률		5.3	4.7	5.4	5.1
금리(국고채 3년물)		1.8	1.4	1.8	1.9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18.3	15.5	14.2	13.7
	수입보험료 (증가율)	117.2 (6.0)	119.8 (2.2)	118.9 (-0.7)	119.3 (0.3)
손해보험	초회보험료(장기)	3.6	3.5	3.1	2.9
	원수보험료 (증가율)	80.2 (4.8)	84.5 (5.3)	87.0 (3.0)	89.2 (2.5)

IV. 경영 및 정책과제

1. 경영 및 정책과제 도출 배경

- 경제·사회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지급여력 악화, 건강·노후소득 보장위험 확대, 새로운 유형의 위험 등을 초래할 것임
 - 경제·사회적 변화 동인은 저성장 지속, 금리 상승, 4차 산업혁명 등임
 -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0%는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 수출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등은 세계경기 회복의 영향이 큰 반면, 소비회복과 가계소득 정체는 지속되고 있음
 -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금리 상승, 보험 관련 제도 변화, 2021년 예정된 회계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보험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금리 상승은 자산운용이익률 제고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대출채권의 신용위험 상승으로 인한 자산건전성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도 미칠 수 있음
 - 한편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 증가와 보험계약 해약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가계의 건강·노후소득 보장위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채부담 확대는 대출차주의 신용도 훼손 및 취약계층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는 보험계약의 해약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사이버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

■ 경제·사회적 변화가 전술한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과제는 다음의 네 가지임

- 성장성 둔화에 대한 대응은 본연의 경쟁력에 기초한 성장동력 모색임
 - －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이란 가계의 건강 및 소득위험, 기업의 생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고 인수하는 역량임
 - － 보험산업의 성장성 둔화는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금리 상승과 자본규제 강화,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가 필요함
- 취약계층 확대, 해약을 증가로 인한 위험보장 공백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될 산업간 융합과 디지털화(Digitalization)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위험을 평가하고 인수하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네 가지 대응 과제별로 경영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그림 IV-1) 참조)

〈그림 IV-1〉 경제·사회적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2. 금융정책 방향

- 한편 새정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과 금융업 본연의 역량 집중을 강조하고 있음
 -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본연의 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업의 생산적 금융은 가계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비, 위험 평가 및 관리 역량 등임
 -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은 포용적 금융으로 잘 표현되는데, 보험업이 가장 밀접한 산업임
 - － 보험은 가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관리하여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함

-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도 앞서 선정한 14가지 경영 및 정책과제에 반영됨

〈그림 IV-2〉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정책 방향

경제상황 변화	금융 안정	금융관행 개혁 및 성장	
2008-2012 • 서브프라임 사태 • 금융위기 • 실물경제 파급 위험 2013-2016 • 대외적 불안요인 • 금융산업 성장동력 약화 • 기술변화 2017- • 금융시장 변동성 • 저성장 고착화 • 취약계층 확대	기업,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장기반 마련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가계부채	상환방식 전환	상환능력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규제 개혁	기술변화 반영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금융업 본연 역량 집중	

3. 경영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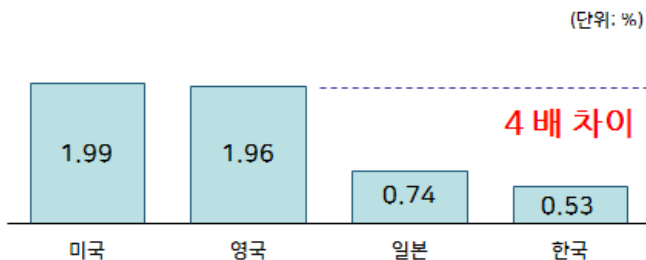
가. 본연의 경쟁력 강화

1)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

가) 필요성

- 과거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장기보험의 성장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에 기초한 신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함
 - 2015년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장기보험이 손해보험의 58.9%를 차지함
 - 지난 20년간 1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장기보험은 최근 4~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 장기보험의 성장 정체로 손해보험 산업 성장세가 둔화됨
-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여력이 큰 것으로 보임
 -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 비해 밀도·침투도가 낮고 전체 손해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음(〈그림 IV-3〉 참조)
 - － 한국의 일반손해보험 침투도는 주요국의 1/4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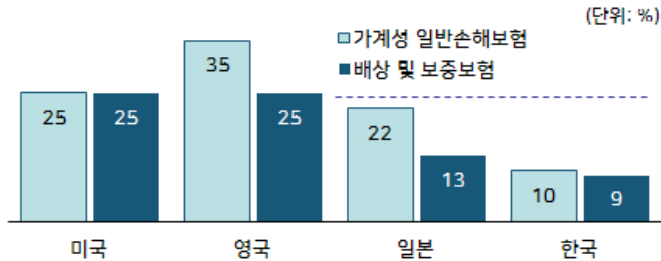
〈그림 IV-3〉 주요국 일반손해보험 침투도 비교



주: 2015년 기준, 침투도는 각국의 GDP 대비 원수보험료

- 특히 가계성보험,²⁷⁾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등에서 성장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그림 IV-4〉 참조)

〈그림 IV-4〉 일반손해보험 시장 대비 상품별 비중



주: 2015년 기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은 주택종합, 상해, 여행자보험 등

- 또한 사이버보험, 드론보험, 스마트 모빌리티 보험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나) 고려사항

- 일반손해보험 역량 강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보험 종목별 시장 발전 저해 요인 파악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보험 판매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규제, 인터넷 사업자의 보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 등은 가계성보험의 시장 확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임
 - 불합리한 일일이익 산정, 기업의 낮은 의식수준, 기업의 배상책임 담보 확보를 의무화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은 배상책임 보험 시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7) 가계성보험에는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EW(보증연장)보험 등이 포함됨

2) 비용 효율적 해외 진출

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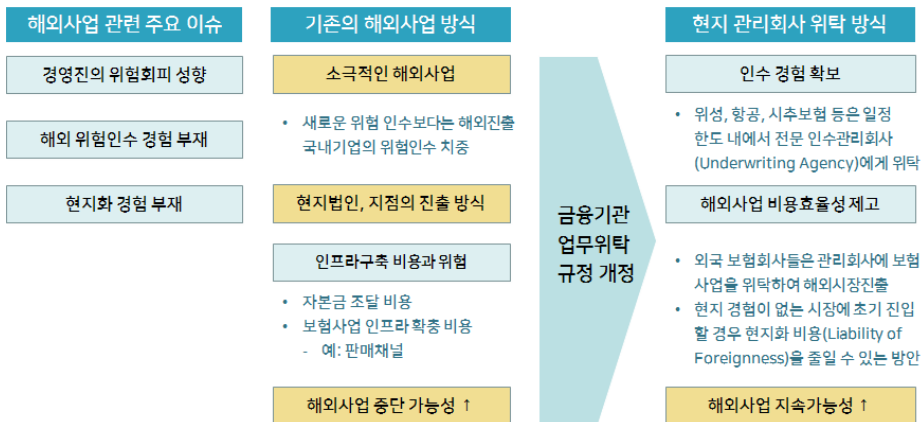
- 보험회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 대응 전략으로 해외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저금리 · 저성장 지속, 인구구조 변화, 국내시장의 포화 상태 등으로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가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함
- 기존 해외사업 방식의 문제점인 인프라 구축비용과 해외진출 실패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 현지의 업무위탁 전문회사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국내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경영진의 단기적 위험 및 손실 회피성향과 해외 보험인수 및 현지화 경험의 부재를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해외진출 보험회사들은 해외 보험물건 인수 등 적극적 사업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보험물건 인수에 치중해 왔음
 -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립에 의한 해외진출 방식은 자본금 조달이나 해외영업망 확충 등의 초기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음

나) 고려사항: 해외 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을 통한 해외진출

- 해외진출의 주요 장애 요인인 해외사업 경험 부재와 초기 투자비용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해외진출 전략으로 업무위탁 전문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해외 업무위탁 전문회사는 위성, 항공, 시추보험 등 보험위험 인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여 경험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지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현지화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 경감을 통해 시장 초기진입이 용이하고 해외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외국 보험회사들은 업무위탁 전문회사를 활용하여 보험인수 등 핵심업무의 업무위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현지 업무위탁 전문회사를 활용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현행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정에서 보험인수와 같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하여 해외진출의 경우 업무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함
- 해외 업무위탁 전문회사와 협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비용의 절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와 함께 선진 보험인수 업무 등에 대한 기술 습득을 통한 보험산업 역량의 강화도 기대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강화된 보험인수 역량을 통해 보험인수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의 확대도 기대됨

〈그림 IV-5〉 비용효율적 해외 진출



3) 경영업무 활성화: 변액보험과 자산관리 서비스 역량 강화

가) 필요성

- 자본금 규모가 큰 대형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변액보험, 연금에서 축적된 고객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운용 및 관리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 비중은 미미하지만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변액연금, 변액보험, 연금에서 축적된 고객의 자산(특별계정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독일의 알리안츠그룹, 영국의 프루덴셜, 미국의 프린시펄 등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일본 다이이치 생명의 미즈노은행과 합작을 통해, 니세이생명의 리라이언스 자산운용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자산운용업에 진출함
- 생명보험회사들이 자산관리 사업에 진출하는 동력은 장수위험(Longevity Risk) 관리 능력과 장기 자산운용 능력(투자위험관리)임
 - 보험회사는 사망·장수위험 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고객의 장수위험을 풀링(Pooling)하기 때문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업과 다르게 부채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
 - 장수위험은 자본시장에서도 관리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이지 못함
 - 개인의 자산관리를 보험회사에 위탁할 경우 장수위험과 더불어 건강위험도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이익률이 낮아지고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시장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시장위험이 없는 수수료 수익 확대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익 안정성을 모색할 수 있음
 - 미국 19개 대형보험회사의 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비중은 평균 22.1%임

– 미국의 프린시펄은 개인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 고객들의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산관리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수료 수익 규모는 2016년 28억 8천만 달러임

○ 변액보험, 변액연금의 보증서비스, 고객 자산(특별계정)의 운용과 관련된 투자옵션 및 전략 선택, 투자신탁 및 연금 계좌 관리서비스 등에서 수수료 수익이 창출됨

나) 고려사항

■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문·일임, 신탁업 등이 겸영업무로 허용되어 있으나 관련 업무에서 창출되는 수수료 수익 비중은 총수익의 5.52%에 불과함

■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개인의 장수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고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고 장기 자산운용 역량 경험이 있는 보험업의 자산관리 서비스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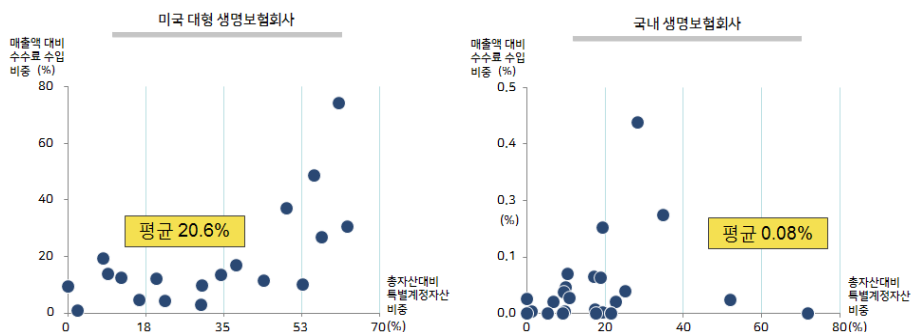
○ 변액보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그림 IV-6〉 특별계정 상품과 관련 서비스

특별계정 상품	관련 서비스
변액보험	보증서비스
변액연금	투자옵션/전략
연금상품	투자신탁
자산관리서비스	계좌관리서비스

자료: Separate Account Products in the US and Canada, Society of Actuary(2000)

〈그림 IV-7〉 특별계정자산 비중과 수수료 수익 비중



자료: 각사 Annual Report

자료: 금융감독원

4) 간단보험 활성화

가) 필요성

-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위험보장 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접한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는 장기보험, 일반보험에서 다양한 위험들을 한 상품 안에서 제공하고 있음
 - － 필요한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위험들까지 모두 보장하는 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한두 가지 위험만 보장하는 단순한 상품은 공급되지 않고 있음
 - － 단순한 상품은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위험만 보장이 가능함
- 간단보험은 수수료 문제, 판매절차, 이익 규모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수수료가 적어 판매를 기피함

-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등 가입절차가 복잡하여 판매가 쉽지 않고 계약자도 가입에 불편함을 느낌
- 간단보험의 시장 규모가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움

나) 고려사항

- 현재 걸림돌인 수수료, 판매절차, 규모의 경제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채널 활용을 통해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간단보험 전문보험회사 진입 허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전문보험회사 또는 판매채널을 설립하여 판매 수수료 절감, 가입절차 간소화, 그리고 비용 절감을 이루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함
 - 중소기업 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여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유도해야 함
 - －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간단보험 전문보험회사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5) 전문보험회사 활성화

가) 필요성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회사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의 주요기능을 인슈어테크를 보유한 스타트업기업들에게 위탁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판매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회사의 등장이 용이해질 것임
-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어려움

- 우리나라는 신규 보험회사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자본금이 300억 원임
- 국가 간 최소 자본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규모를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배수로 비교해 볼 수 있음²⁸⁾
 -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총소득(GNI)의 1,370배인데 반해
 - 미국은 생명보험 143배, 손해보험은 380배이며, 독일의 경우 69배, 일본의 경우 308배 수준임²⁹⁾

〈표 IV-1〉 주요국의 최소자본금 요건 비교

구분	한국	미국(뉴욕주)	독일	일본
요건	자본금, 기금	자본금, 기금, 공탁	최저보증기금	자본금, 기금
주식회사	최소 300억 원	• 생명보험: 자본금 200만 달러, 잉여금 400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200% 중 더 큰 금액 • 손해보험: 자본금 1,160만 달러, 잉여금 630만 달러, 7-17종목 영위 시 50만 달러 공탁 필요	• 생명보험: 300만 유로 • 손해보험: 300만 유로	10억 엔 이상
상호회사	주식회사와 동일	• 생명보험: 자본금 65만 달러, 잉여금 20만 달러 • 손해보험: 자본금 935만 달러, 잉여금 600만 달러	주식회사의 1/4	10억 엔 이상

주: 각 국가별 자본금은 전 종목을 전부 취급한 것을 가정함
 자료: 이기형 외(201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참조

나) 고려사항

- 전문 보험회사의 진입과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규제를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체제로 진입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8) 비교수치는 각 국가의 자본금을 2012년 환율적용달러로 환산하고 이를 1인당 GNI로 나눈 것임(자본금/GNI). 이기형 외(201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

29) 김석영 외(2017. 9. 4),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금융당국은 전문보험회사 출현과 생존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규제 적용 시 회사의 규모에 맞는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감독목적의 요구자본 충족 기준에서 보험회사 리스크의 특징,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는 비례성의 원칙³⁰⁾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시 최소자본금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보다 기업의 규모 혹은 종목의 특성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보험회사 위험관리

1) 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위험관리 역량 제고

가) 필요성

- 2021년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 9 및 17)와 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할 예정임
-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표시하는 현행 회계기준(IFRS4)과 달리 보험부채를 평가시점마다 시가로 평가함
 - IFRS 17 도입 시 현행 대비 보험회사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IFRS 17은 시가평가로부터 예상되는 장래이익을 보험부채로 표시한 후 보장서비스 제공에 비례하여 천천히 인식하도록 하고, 이차역마진 등 장래

30) 유럽연합조약(TEU) 제5조 제4항. “비례의 원칙하에 연합 행위의 내용과 형식은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합의 기관은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규정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비례성 원칙은 본원의 확립된 판결에 따르면 공동체법의 일반적 법원칙에 속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경제참여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부과되는 조치는 문제되는 규제가 추구하는바 허용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합법적임. 복수의 적합한 조치가 선택될 수 있는 때에는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가 선택되어야 함. 나아가서 부과된 부담이 추구하는 목적과 균형적 관계에 있어야 함

예상되는 결손은 즉시 손실로 인식하도록 함

- 이때, 보험부채로 표시된 장래이익은 자본과 더불어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중요 정보임

○ 또한, IFRS 17 도입으로 인해 보험부채 측정 시 원가가 아닌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자본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부채 평가 시 평가 당시 시장금리를 할인율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환
경 변화(특히, 시장금리 변동)에 의한 자본변동성이 심화됨

■ 새로운 금융자산회계기준인 IFRS 9은 '자산의 공정가치(시가) 평가'에 중점을 둔
기준서로 금융자산 분류 및 측정, 손상 인식 방법 등이 현행 회계기준(IAS 39)과
다름

○ IFRS 9는 금융자산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의해 엄격하게 분류
하는 것이 특징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FVPL)로 측정되는 자산의 비중 증가
로 손익변동성이 확대가 예상됨

-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AC),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당기손익-
공정가치(FVPL)로 분류 및 측정함

○ 현행 회계기준은 발생손실에 대해서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IFRS 9은 기대신용
손실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K-ICS는 시가평가 기준 지급여력제도로 현행 제도(RBC 제도)를 개
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함

○ 가용자본이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치(자산 - 부채)로 정의됨에
따라 제도 도입으로 가용자본 감소가 예상됨

○ 요구자본은 신규 리스크 추가, 현금흐름을 반영한 충격시나리오 적용, 신뢰수
준 상향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됨

나)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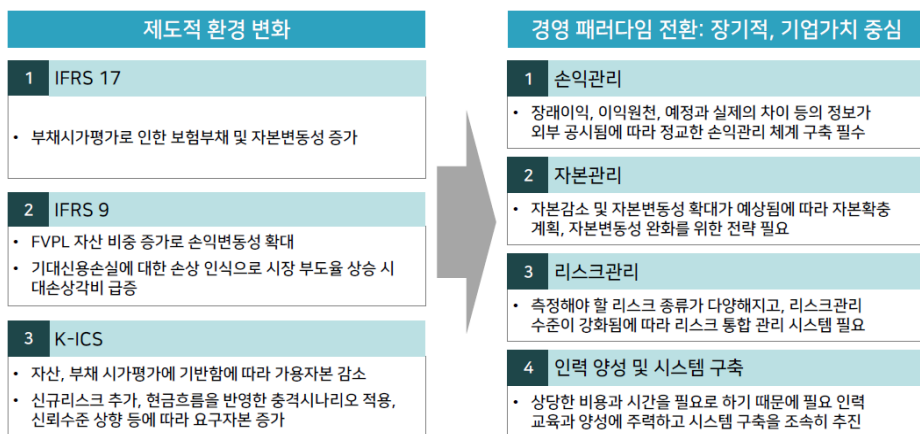
■ 이러한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면적인 경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경영전략: 외형(수입보험료) 성장 중심에서 장기적 관점,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 강화가 필요함
- 손익관리: 장래이익, 이익원천, 예정(최적가정)과 실제의 차이 등의 정보가 외부 공시됨에 따라 정교한 손익관리 체계가 필수적임
 - IFRS 9 도입에 따른 손익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금리부자산 비중 및 듀레이션 확대,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측정 자산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임
- 자본관리: 부채 평가 시 최적가정과 시장금리를 반영한 할인율 적용으로 자본 감소 및 자본변동성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본확충 계획,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IFRS 9 및 17 도입 시 자산 및 부채의 측정 기준 불일치³¹⁾에 의해 자본감소 규모가 확대되고, 도입 이후 자본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과 이를 지원할 규제 개선(자금조달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함
- 리스크관리: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의해 측정해야 할 리스크 종류가 다양해지고, 리스크관리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리스크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경영의사결정의 연계를 강화)
 - 보험회사 ALM 전략은 기존에 RBC 기준 듀레이션 갭을 관리한 것이 일반적이거나 향후 경제적(실질) 듀레이션 갭을 관리의 중심에 두되, IFRS 및 K-ICS와 공통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1) IFRS 9 및 17 도입 이후에는 부채의 대부분이 시가평가되는 반면 일부 자산은 여전히 원가법으로 측정되어 회계적 불일치가 발생함

- 회계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해외 장기채권 및 회사채 비중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환 및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영전략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과 시스템 구축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 교육과 양성에 주력하고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그림 IV-8〉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위험관리 역량 제고



2) 해외투자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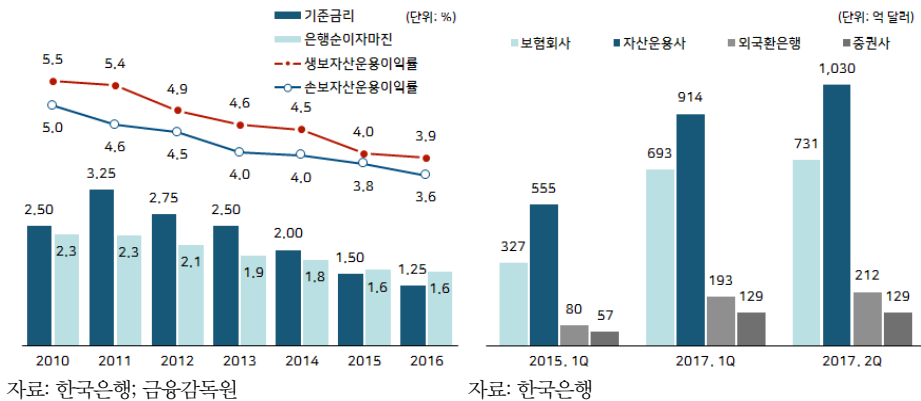
가) 필요성

- 저금리로 금융회사의 운용이익률은 하락하고 있음
 - 기준금리 등 시장금리 하락으로 보험산업 자산운용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1년 기준금리는 3.25%에서 2016년 1.25%로 하락함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은 2011년 5.4%에서 2016년 3.9%로 하락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2011년 4.6%에서 2016년 3.6%로 하락함
 - 은행의 순이자마진도 2011년 2.3%에서 2016년 1.6%로 하락함

■ 수익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가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그림 IV-9〉참조)

-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규모는 2015년 1/4분기 327억 달러에서 2017년 2/4분기 731억 달러로 증가함
- 자산운용사의 경우 2015년 1/4분기 555억 달러에서 2017년 2/4분기 1,030억 달러로 증가함

〈그림 IV-9〉 금융산업 운용이익률과 해외투자 규모



■ 해외투자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리변동과 환율위험 관리가 필요함

나) 고려사항

■ 전사적인 자산부채 관리전략과 일치하는 금리 및 환율위험 관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외화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 방안이 단기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될 수 있음
 - － 그러나 단기 외화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 방안은 롤오버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위험을 확대시킬 수도 있음
- 장기 외화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는 단기적 수익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 위험관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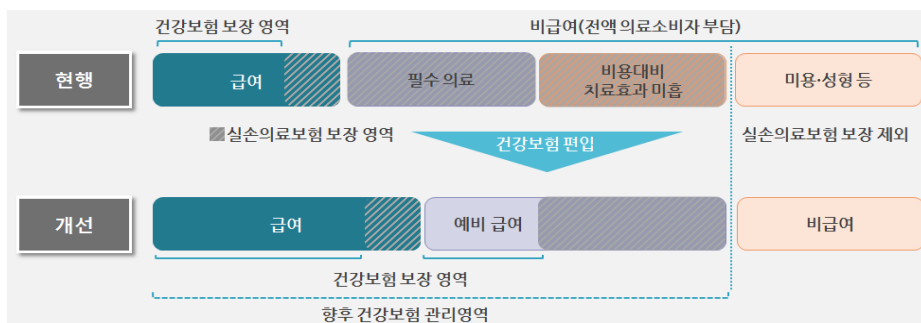
다.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1) 실손의료보험 역할 재정립

가) 필요성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됨
 - 정부는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예비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함(2017. 8. 9)
 -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운영되는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라 보장구조 및 손해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그림 IV-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보장구조 변화



- 이에 따라 공보험 체계 개편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장 범위 변경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효과가 실손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사 건강보험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발표(2017. 9. 29)

나) 고려사항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영향 분석은 급여 예비급여 전환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세부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통계적 산출 및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진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진료비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전체 의료기관이 발급 및 사용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 고시(2017. 9. 1)
 -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을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공개 항목 추가 확대 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항목(도수치료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병원급만 의무적으로 적용, 전체 의료기관의 90% 이상 차지하는 의원급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함
 - * 복지부 계획(안) : 2016년 52개 → 2017년 107개 → 2018년 200개 예정

2) 공사협력 노후소득 보장

가) 필요성

-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 및 후속조치 이후 퇴직연금 가입자 확대 등 연금시장의 환경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자(최대

- 731만 명)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됨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고용정책심의회(2017. 2. 28)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표 IV-2〉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확대 전	확대 후(추가대상자)
• 퇴직(일시)금수급 퇴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 재직 근로자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자영업자 •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 근로자 •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7. 4. 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한계 극복에 한계가 있음
 -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위기(국민연금 기금소진 2060년 예상)로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사실상 어려움
 - 사적연금의 경우 저성장·저금리의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자율에 의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공사 협력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등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은 가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후조치(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가 요구되고, 수급권을 보호하고 연금형태로 수령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이 필요함

〈표 IV-3〉 공사연금 재구조화 및 협력 방안

공적연금	사적연금
• 재정안정화 • 기본적 소득보장 제공 *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납부예외율 55%) * 소득대체율(현 25~30%) 4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내실화 필요	•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사후 조치 추진 * 저소득층, 퇴직직전세대 등을 대상으로 세제혜택 강화(Catch-up policy 도입) * 퇴직연금 의무화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령 강화 * 일시금 수령 시 과세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분을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으로 전환

나) 고려사항

- 보험회사는 자영업자, 공무원 등 퇴직연금 가입대상자 확대 과정에서 가입자 특성 파악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의무화 과정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수준 강화에 따른 미적립채무(예: 40%)에 대해 신용보험제 도입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요구됨

3) 장애인, 정신질환자 보장 확대

가) 필요성

- 지난 10년간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의 보험차별 금지에 관한 법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험 접근성은 낮은 수준이고,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은 미흡한 상황임
 - 2005년 국가인권위의 민영보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개선을 권고한 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
 - 그러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경험통계 부재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에 없고, 경증 정신질환자도 해외보험사와 비교하여 까다로운 가입조건을 내세워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대부분의 질병보험에서 정신질환은 중증도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정신질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예외 질병임
- 근로 활동 기간에 다빈도로 발생하는 기분장애,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 조현병에 대한 보장상품은 공급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접근성 제고 및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정신질환 관련 통계 구축의 미미,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인수기준과 위험률 부재 때문에 정신질환 보장상품을 공급할 수 없었고 정신질환 관련 통계를 구축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
- 따라서 건강보험 · 의료급여 통계와 같은 국민통계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건강통계가 구축되어야 정신질환별 구체적인 인수기준과 위험률이 마련될 수 있으며,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공급을 통해 경험통계 구축이 가능해짐

나) 고려사항

■ 정신질환에 대한 위험 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편견 정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 ·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함

■ 민영보험은 정신질환의 위험 보장을 위해서 중증 정신질환이 어렵다면, 경증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 인수기준을 마련해야 함

-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경험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수기준이 미비한 상태임
- 과학적·의학적 통계에 근거하여 정신질환별 중증도를 고려한 인수기준이 필요함
 - 정신질환별 인수기준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인수옵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신질환 보장 범위 및 인수지침을 마련해야 함

■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상품 공급의 확대 및 운용을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정신질환 보장상품의 운용이 어려운 이유는 정신질환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신질환 판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다른 신체질환과 비교하여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실제 많은 나라에서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이용횟수 제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연간 치료비 한도 제한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고 있음

4) 자동차보험과 사고 예방

가) 필요성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임

- 2014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GDP 대비 1.79%로 영국 0.46%, 독일(2013년 기준) 0.87%, 미국(2010년 기준) 1.4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93건으로 OECD 평균 1.1명, 41.2건의 두 배 수준임

-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이외에 운전자의 선택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등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함
 -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7.6%, 사망자 수의 21.5%, 부상자 수의 19.2%를 차지함
 - 사망자의 평균 사고비용은 1인당 4억 2,704만 원인데 사망자 수의 21.5%를 차지하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이 줄어들 경우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임

나) 고려사항

- 자동차보험제도가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등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임
 - 사회적 제재 강화를 위해 2004년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제도를 도입, 대인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 원을 구상하도록 규정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9조, 시행규칙 10조)
 - 사고부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음주운전 감소효과는 미미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2003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13.0%였으나 2004년 도입 당시 11.4%로 소폭 감소한 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2%수준을 유지하였고 2016년에야 8.9%로 감소함
- 사고부담금을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예: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운전까지 사고부담금 구상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운전자가 실질적인 부담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여 해당 행위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함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형량을 상향 조정

하여 형사적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제재 강화를 위한 사고부담금 증액과 더불어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면제하여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가해자의 치료비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100%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하는 치료비의 일부를 가해자 본인이 최대 50%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IV-4〉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

구분	현행	제도 개선 방안	기대효과
사고부담금 확대 강화 (자배법 29조, 시행규칙 10조)	2004년 도입 - 대인사고 1건 당 300만 원, 대물사고 1건 당 100만 원 구상	음주/무면허 운전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20%)를 부담	- 안전운전 유도 - 사고 예방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 (자배법 10조, 시행령 9조)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보험자가 치료비 지급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하는 치료비의 일부를 가해자 본인이 부담(최대 50%)	- 형평성 제고 - 음주운전 교통사고 억제

자료: 불합리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2017. 8. 28)

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대비

1)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보험

가)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는 산업의 생산성, 편의성, 효율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뿐 아니라 실업 증가,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 잠재적인 폐해도 초래할 것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나) 고려사항

- 산업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사이버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그림 IV-11〉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

2) 보험과 헬스케어 융복합: 건강나이를 고려한 상품 개발

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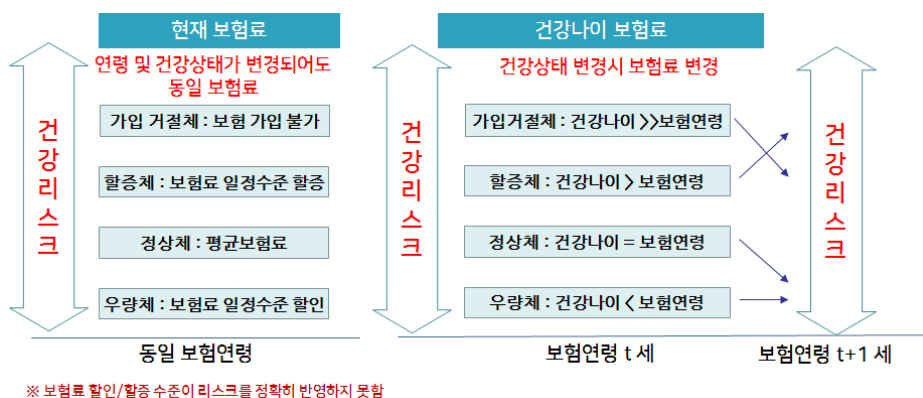
- 현재의 건강상태 변화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재의 보험료 산출체계에서는 건강상태가 변화되어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함
 - 정상체는 위험률에 기반한 평균보험료를 납부함
 - 우량체(할증체)는 정상체 보험료의 일정수준을 할인(할증)받으나 할인 수준이 우량체(할증체)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함
 - 가입거절체는 보험가입 자체가 불가함
 - 계약자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개선하여도 보험료에는 반영되지 못함
 - 보험계약자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헬스케어 서비스가 건강나이를 기반한 보험상품에 도입되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 보험회사,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줄 수 있음
 -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 재정 개선효과가 예상됨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피보험자는 자신의 건강을 꾸준히 유지 관리하게 되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음

나) 고려사항

-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계약자의 건강리스크를 반영하는 건강나이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건강나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건강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료 산출은 현재의 보험나이 기준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³²⁾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실제 건강리스크를 반영하는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임
 - 가입거절체들도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어 건강 문제로 인한 보험가입 거절이 사라짐
 - 우량체/활증체/간편심사보험 상품이 건강나이상품으로 대체가 예상됨
- 일정기간 마다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이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함
 - 건강나이가 개선되면 보험연령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건강나이는 내려가서 보험료가 할인이 될 수 있음
 - 반면 건강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헬스케어 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IV-12〉 건강나이를 고려한 상품 개발



32) 보장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보장기간 동안의 평균보험료

3)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 간소화

가) 블록체인 개요

-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원장기술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와 달리 동일한 정보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분산형 네트워크임

-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1세대 블록체인으로 지칭함

-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 신뢰성이 높으며,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음
 -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음

- 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을 2세대 블록체인으로 지칭함

- 이더리움은 내재된 앱(App)으로 스마트계약*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1세대 블록체인에 비해 활용도가 높음
 - 자체 프로그래밍 기능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거대한 슈퍼 컴퓨터로 일컬어짐

* 스마트계약은 사전에 결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임

- 블록체인은 금융거래 및 기업 간 거래에서 효율성 증대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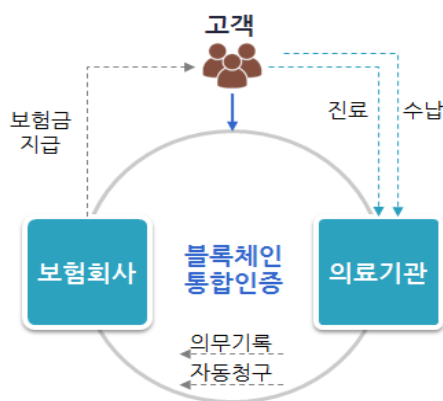
- 블록체인은 스마트계약, 위변조 방지, 본인 인증, 송금 및 지급결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목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 보험, 금융, 법률, 세무, 부동산, 물류, 헬스케어, 공공서비스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사용 가능함

나) 블록체인의 활용: 보험금 지급 간소화

- 교보생명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을 이용하여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 중임

- 계약자가 진료를 받고 의료비를 수납하면, 의료기관은 블록체인 통합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과 수납내역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함
-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복잡한 서류 및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계약자의 편리성과 보험사의 효율성이 개선됨

〈그림 IV-13〉 교보생명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 구축 방안



자료: 교보생명

다) 보험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향후 과제

- 보험금 지급 간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보험 이외의 영역에서도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어야 함
 - 현재 구축 중인 보험금 지급 간소화 시스템은 보험금 지급심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완전한 스마트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보험금 지급심사는 스마트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문제가 아니며, 비급여 진료항목이 표준화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심사까지 스마트계약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임

- 보험금 지급 간소화는 전 보험사가 참여하고 대상 보험종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사망보험 및 재해장해 보장과 같이 표준화된 보험 계약의 손해사정 및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블록체인화하여 보험회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들의 공동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보험금 중복 청구, 과다 진료 및 보험사기 관련 징후를 조기에 확인 가능하며,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 심사 차이로 인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 · 최장훈 · 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 · 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이해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 · 박지운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 · 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종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 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운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량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 · 이태열 2017.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080 / pgc0703@kiri.or.kr)

저자약력

전 용 식

Iow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ongsik.jeon@kiri.or.kr)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김 진 역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
(E-mail : kjo990@kiri.or.kr)

권 오 경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katie5022@kiri.or.kr)

이 혜 은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he@kiri.or.kr)

정 인 영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essence4u@kiri.or.kr)

연구보고서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66-4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